

탁아활동의 길잡이

1993년 8,9합본 첫발행 5.25. 통권 14호 발행인 최현숙

함께 가는 길

1993.8,9 합본호

지/역/사/회/탁/아/소/연/협/회

함께 가는 길
8,9월 합본호 <제14호>

짜

임

서

일하며 생각하며 / 2	
모범으로 힘차게 내는 우리 탁아소가 되어야	이명숙
만나보았습니다 / 4	
햇병아리는 아니고 중달이라구요	서정은
아동 교육연구 / 12	
1992년 고시 제5차 유치원 교육과정 (2)	조선경
아동 교육 / 18	
유아체육에 관하여	아동교육분과
개특위 / 22	
용도변경에 관하여	영유아보육법개정특별위원회
특별기고 / 33	
농촌탁아소의 현황과 문제점	엄영애
활동총결 / 36	
지탁언 교사 여름수련회 열려	
글마당 / 44	
너희에게	장정숙
탁아소별곡 / 46	
모두가 웃을 수 밖에 없는 진달래 이야기	임남희
소식과 소식 / 48	
우리들의 목소리 / 56	
최은선, 김연희, 박정미	
편집부에서 / 65	

* 탁아소 백과 / 11 신생아 기형귀 교정 * 우리 탁아소 별미 / 21
오손도손어린이집의 '떡꼬치' * 자라는 아이, 긴밀한 교사 / 64 장난
감? 놀이감! * 새책 소개 / 59

☆ 표지사진: 네 몸을 담고 차근차근히..
교사들의 투지와 열정이 느껴진 '92 지탁언 여름수련회 체육대회에서
각각의 얼굴 표정이 익살맞고 재미있다. 정말로 즐거워 보인다.

일하며 생각하며

모범으로 힘차게 내딛는 우리 탁아소가 되어야

이명숙 (인천 햇살어린이집)

지난 7월 7일부터 9월 3일까지 덕성여대에서 시설장 양성교육을 받았다. 구청에서 무자격 원장이면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연락이 와서 부랴부랴 지침서를 찾아보니 우리 집 같이 30명이상 시설일 때 보육교사 1급자격자로 5년 이상의 근무경력을 가져야만 원장자격이 있었다. 듣자하니 보사부는 1994년 1월 14일 경과조치 마감 이전에 전환하게 될 새마을 무자격원장에 대해서만 시설장 양성교육을 마련하였다가 일반 민간보육시설의 요청(?)으로 인해 각 구청이 양성교육대상자를 추천하게 된 것이다.

두달동안 탁아소는 어떻게 비우나, 민보련은 어떻게 하고, 또 무거운 몸으로 어떻게 서울까지 출퇴근하나..

이런저런 걱정을 뒤로 하고 두달동안 400시간 받은 교육은 그동안 학교를 졸업하고 재교육을 받을 기회가 별로 없었던 내게 많은 것을 배우고 느끼고 생각하게 하였다.

교육을 받은 원장들은 어린이집으로 전환하게 될 전국 각지의 새마을 유아원 원장들과 30인 이상 정부지원시설, 민간어린이집 원장 등 200여명이었다.

유아원 원장들은 정책이 바뀔 때마다 관할 부서의 전환, 명칭 변경이 되어왔기 때문에 정부의 변화에 민감하고 또한 유아원이 어린이집으로 전환되면서 행정적으로 보완되어야 할 여러 부분에 대한 요구와 대안들을 제시하고 있다. 민간어린이집 원장들은 정부의 지원시설 확대, 유아원 전환, 종일제 유치원, 학원, 선교원들이 주변에 늘어가면서 자구책으로 외국의 유아교육프로그램을 도입하거나 (심지어는 외국 유아교육프로그램 간판을 사는데만 1-2백만원을 투자한다) 학원으로 전환을 시도하고 있는 원장들이 많았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앞으로의 우리 활동이 이런 왜곡된 모습을 변화시켜 나가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점과 기존의 활동내용에 대해 좀 더 깊은 고민을 할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였다.

다른 하나는 학교교육 이후 세번째로 개정된 유아교육과정을 중심으로 한 교수님들의 열정적인 강의에 힘입어 아동교육에 대해 새롭게 인식하고 다짐하게 된 것이다.

무엇이 그리 힘들다고 아우성이나고 남들은 이야기할 지 몰라도 과중한 일상활동으로 정신적, 육체적으로 여유가 없는 것이 우리 탁아소, 탁아교사의 현실이다.

하루종일 아이들에 부대끼고 가끔씩 부모들이 서운한 소리라도 할라치면.. 게다가 우리나라 탁아현실속에서 개선해야 할 여러가지 정책적인 문제, 행정적인 문제에 소홀히 할 수 없는 상황이기도 더욱 그러하다.

그간의 지탁연 활동이 우리나라의 탁아정책을 바로 세우고 정착시켜 나가는데 지대한 공헌을 했다는 사실이 교육에서 강조되면서 아동교육에 대한 고민과 실천을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더욱 어깨가 무거워지기도 하였다.

우리는 그동안 다른 민간탁아소들과의 연대활동을 통해 탁아사업에 있어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민간탁아소들이 가져야 할 위상과 올바른 역할을 견인해왔다.

단순히 주변과의 경쟁 차원으로 모여서 힘을 과시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과 함께 탁아소의 공적 운영을 가로막는 정책의 문제를 인식하고 올바른 탁아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격려하고 함께 해나가야겠다. 부유(浮流)하는 민간탁아소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1994년 경과조치 이후 유아원에서 어린이집으로 전환하게 될 시설과 함께 할 수 있는 내용들을 다져나가야 할 때다.

이제 탁아문제는 지탁연과 소수의 사람들만의 관심사가 아니다. 또한 이런 소수의 사람들만의 힘으로는 해결이 가능하지도 않다.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탁아문제에 관심을 갖게 하고 이들의 힘을 모아 올바른 탁아정책을 만들어 내고 그것이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러한 때에 개최하는 9월 24일 '보육정책 발전을 위한 대토론회'는 이런 의미에서 더욱 중요한 자리이다. 탁아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 온 지탁연 활동의 정당성을 가지면서 직접적인 요구세력과 문제해결의 당사자들이 함께 모여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이기 때문이다.

어려운 일상활동속에서 고군분투하는 지탁연가족 여러분의 뜨거운 힘과 열정들을 모아 9월 토론회부터 10월 어머니큰잔치까지 매 걸음 걸음 힘차게 내딛자! *

가영이가 '쉬'를 하다 영영이쪽으로 흘러내려 선생님이 닦아주는 것을 보고 옆에서 놀던 진규가 하는 말.

"선생님, 여자들은 영영이로 쉬해요?"

"..!"

< 마산 두레아가동산 (93.4. 제9호) >

만나보았습니다

햇병아리는 아니고 중담이라구요.

서정은 (문화홍보관사, 편집부)

서정은: 안녕하세요? 선생님들과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탁아소 활동 1년 미만의 선생님들을 각 지역에서 추천받아 이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처음 탁아소에 들어와 정신없었던 때에서 이제는 많이 익숙해진 반면 고민도 많을 것 같은데요. 어떤 생각들을 하고 계신지 궁금하기도 하고.. 우선 탁아활동을 시작하게 된 동기나 요사이 생활들을 자유롭게 이야기 하지요. 인사부터 나누시고.. (서로 인사)

김지연:

저는 성남지역 푸른솔예기방에서 지난해 11월부터 활동해왔어요. 탁아소에 대해서는 학교 다니면서 관심을 가지고 준비를 하다가 집안 반대도 있고 연결도 잘 안되어서 학교 졸업한 후 일반 직장에서 1년, 집에서 1년 지내다가 탁아소로 들어왔어요. 제게 가장 알맞는 일인것 같아서 선택했는데 맞는지 안 맞는지 잘 모르겠어요. (웃음) 그래도 제가 했던 일 중에서 가장 즐겁게 느껴져요.

하지만 아동교육을 전공하지 않아서 인지 점차 생활하면서 아이들 교육에 있어서 자신감이 많이 떨어지고, 그럼때면

김지연 (성남, 푸른솔 예기방, 내가 너무 준비없이 시작한게 아닌가 싶어요.

68년생, 92.11월부터 시작)

김경란: 안녕하세요? 올해 학교를 졸업하고 들어와 아이들과 생활한 지 6개월인데요. 같이 계시는 선생님들은 3년, 5년 경력자들이어서 그분들에게서 보고 배우는게 많아요. 얼마전에 보육교사 양성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이야기들었는데 탁 아소에 있으면서 6개월을 어떻게 다닐지.. 그만두고 교육을 받는다쳐도 현재 활동하는 오손도손어린이집으로 다시 온다는 보장도 없고.. 왜냐면 저희 집은 재개발 지역에 있어서 언제 철거될

지 모르거든요.

저희 집에서는 돌아가면서 재정등을 책임지는 책임교사 제도를 갖고 있는데 7월에 제가 했어요. 또 아동교육담당을 내년 2월까지 맡게되었구요. 책임교사를 하면서 탁아 활동에 자신감을 갖게되었어요. 탁아소 활동을 얼마나 잘 할지는 자신의 노력에 달려있다고 생각해요.

박부자: 활동 시작한 지 거의 1년이 되어가는데 지난 기간을 돌이켜보면 처음에 들어와서는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뭘 가르쳐야 될 지 몰랐어요. 그렇지만 탁아소 활동에 대한 느낌이 4.5개월때와 지금은 다르네요. 마냥 나는 처음 들어왔으니까 하고 앉아 있을 수만은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무기력감도 빨리 극복해야 하고..

김경란 (동부, 오손도손어린이집, 70년생, 93.4시작)

유승현: 저는 1987년도 성남지역 만남의 탁아소에서 봉사활동한 적이 있어요. 탁아소 일을 하면서 자기 계발 할 수 있으리라는 생각에서 들어왔어요.

학교를 다니면서의 생각은 졸업 후 결혼을 해서 가정속에 파묻히거나 노동사목을 할 생각이었어요. 그러다 종교단체에서 일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졸업한 후 수녀원에서 5년동안 수녀로 있으면서 노동사목일을 하였어요. 그러나 처음에 생각했던 것과는 많이 다른 모습들을 보면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또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수녀복을 입고 있는 제게 정작 도움을 주고 싶고 함께 하고 싶은 사람들은 거리감과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것 고..

한 5년동안 지내고 보니 토끼 두마리를 못 쫓겠다. 나도 민중의 한 사람이고, 한 사람으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게되었고 찾다보니 탁아소를 생각했지요. 노동자, 빈곤층과 접하면서 할 수 있는 일이 더 많은 것 같다는 생각에서요.

정은: 처음에 이 일을 시작할 때 집에서의 반대들은 없었나요?

지연: 왜 없었겠어요. 결혼하고 애 낳으면 징그럽게 많이 키울텐데 왜 그렇게 힘든 일을 하려고 하느냐고 반대했지요. 더구나 통오줌 못가리는 애들을 어떻게 키울테냐고요. 하지만 요즈음은 별 희안한게 적성에 맞나보다 하면서 신문에서 탁아소일과 관련된 기사가 있으면 모아주시죠. 이렇게 변화하게 된 것은 아무래도 집에서 제가 하는 일에 대해 많이 이야기하고, 더욱 중요한 것은 제가 하는 일에 대해 불만을 이야기하지 않으니까요. 부모님들도 알게 모르게 좋은 일 하는 것같다고 인정해주는 것 같아요. 장래를 생각하면 감감하지만..

부자: 저도 처음에는 집안에서의 반대가 심했지만 지금은 탁아소 운영에 대해 관심을 많이 보이세요. 아이들과 어떻게 지내고 뭘 먹고 월급은 어떻게 나오는지 궁금해하고.. 가족과 자리할 때마다 제 생활을 이야기해요.

얼마전에는 저희 어머니가 '네가 있는 곳에 가서 하는 일을 한번 보고 싶다'고 하시





박부자 (부천, 아이사랑 어린이집,

69년생, 92.10시작) 정은: 하루중에서 가장 많이 생활하는 아이들과는 어떻게 지내세요? 요새 '아동교육의 전문화'가 각 지역별로 숙제인것 같은데..

부자: 요즘 들어와 우리 집에서는 아동교육에 세밀한 신경을 씁니다. 어차피 아이들과 똑같은 시간을 보낼 바에 좋은 교육을 하면서 교육적인 효과도 얻고, 뿌듯함도 맛보고.. 그러자는 거지요. 아동교육의 전문성과 중요성에 대한 생각들은 여름수련회에서도 많이 드러난 것 같아요.

어려운 환경과 조건에 있는 우리 탁아소들이 교육내용에 대해 이전보다 더 신경을 쓰는 것은 다른 시설들을 의식한 면도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일반유치원, 학원 등과 비교해 볼 때 잘하고 있는 면들도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교육하고 있다고 알려내려는 노력을 굳이 하지 않네요. 한달 교안을 미리 발표한 후 교육 목적, 이유, 탁아소 교육활동과 연결된 생활상의 협조를 당부하는 등..

지연: 처음에는 아이들과 뭘 함께 한다는 게 어려웠어요. 뭘 하려고 해도 경험이 있어야지하는 생각만 들고.. 먼저 해보겠다, 함께 하면서 가르쳐달라고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힘들게 하루종일 일만 했지 쌓이는게 없다고 느꼈어요.

나는 신진 교사니까하는 생각에 뭔가 주어지기만을 바라고.. 일이 주어지면 하는데 내가 먼저 하겠습니까 못해요. 같이 있는 교사는 그 나름대로 신진이니 의욕도 있고 그런데 왜 안할까하니 서로 불만이 쌓이는 것 같아요.

저희 지역의 선생님들은 탁아소에서 3,4년 일하면서 있는 것, 없는 것 다 빼주고 탈진 상태예요. 많이 지쳐있어요. 특히 우리집은 올 3월에 무리하게 확장, 이전을 하고 현재 아이들을 25명 받고 있는데 그 중 13명이 24개월 미만의 영아여서 더욱 힘드네요. 예전의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현재는 넓어지면서 시설탁아소 느낌에 뭔가 익숙하지 않고..

우리 엄마들이 집에서 아이들을 챙겨주지 못하는 상황에서 엄마 말고 제일 오랜 시간 같이 있는 선생님이 신경써야 하는데 하루종일 영아를 쫓아다니다 보니 큰 애들 챙겨주지 못해서 뭔가 미안하고..

더군요. 그 소리를 듣는 순간 너무 기뻐요. 특히 결혼한 친척이나 언니들이 아이들에 대한 문제나 궁금증을 느낄 때마다 꼭 물어오지요. 그럴때면 제가 뭐 되는 듯이 으쓱해져요.

경란: 저희집도 마찬가지로 반대가 심했어요. '제가 저렇게 어려운 일을 언제까지 할려고, 하다가 말겠지' 하는 생각이었어요. 탁아소 일에 대해 쉽게 이해를 하지 못하니까요. 특히 아버지와 사이가 매우 안 좋았어요. 그러다가 첫 월급을 받아 아버지께 드렸는데 봉투안에 같이 일하는 선생님이 쓴 '열심히 일 잘하자, 함께 일하게 되어 정말 기쁘다'는 내용의 글을 보면서 그렇게 험한 곳이 아닌 걸로 여기시더군요. 또 얼마전에 KBS에 방영된 안산지역 탁아소 프로그램을 본 후 많은 격려 받았어요.



유승현 (구로, 은누리어린이집, 64년생 92.10 시작)

승현: 저는 아이들을 통해서 배우는 게 참 많아요. 아이들의 표현이 직설적이고 단순하잖아요? 제가 가지고 있었던 사물에 대한 고정관념이 아이들을 보면서 많이 깨져요. 그렇게 맑고 순수한 아이들이 어른들에 의해 변화되고 어른의 반응에 민감해 하는 걸 보면 안타깝기도 하고.. 탁아소에 오면 엄마, 아빠가 하는 행동 그대로 하고, 집에 가면 탁아소에서 보고 배운 대로, 교사하는 것 그대로 하는 것을 보면서 대강 대강해서는 안되겠다, 준비하고 공부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은: 아이들을 잘 돌보기 위해 우선은 탁아소가 안정적인 운영이 되어야 하는데 재정의 어려움이 가장 큰 것 같아요. 월급은 제대로 가져가나요? 근로조건에 대해 만족들 하세요? 어떠세요.

부자: 저희는 올 7월부터 4만원씩 인상해 29만원인데 월급은 반드시 제날짜에 가져가자고 했지요. 보육료로는 턱없이 모자라고 결국에 후원이나 정부지원인데.. 저희는 이번에 이사하면서 후원회보를 만드는 등 후원인 관리에 신경을 쓰려고 해요.

경란: 저희는 초봉이 23만원입니다. 학교다니면서는 부모님한테 용돈받고 다녔는데 앞으로는 어떨지.. 저야 미혼에다 집에서 다니니까 상황이 조금 나은 편이고 다른 선생님들은 결혼도 해야하고.. 일단 우리 지역이 불안정하고 맞벌이 부부원칙을 고수하면서 아이들이 점점 떨어져요. 매달 적자가 200여만원씩 쌓이고 이번달 인건비는 개인에게 빚을 내서 어떻게 넘어갔어요. 정말로 재정적인 어려움이 심해요.

지연: 저희도 올 3월부터 30만원으로 올렸으나 두달동안 15만원씩 가져가고 월급이 나눠어져서 나오고 미뤄지고.. 또 공간을 이전하면서 대출받은 것 매달 40만원씩 붓는 것도 있고.. 영아가 많이 들어와서 조금 나아질 것도 같기는 한데..

저희 집은 교사가 돌아가면서 두달씩 재정을 맡게 되어있는데 모두들 맡기 어려워해요. 재정 얘기만 나오면 답답해요.

승현: 저희도 재정이 어려운 것은 마찬가지인데 시집도 안가고 이런 일을 하면서 자립은 해야하는데 탁아소 선생 월급 30만원 받아가지고는.. 저희 집은 월세 45만원을 감당키어려워서 이전을 고민하고 있어요. 재정문제에 스트레스를 받으면 나라도 나가서 돈을 벌어서 '은누리'에 재투자할까 하는 생각도 해요.

정은: 지탁연 소속 회원탁아소들의 어려움은 재정뿐만이 아니라 아이들을 보는 것 외에도 많은 일을 한다는데 있어서도 나타나는 것 같아요.

상반기 동안에도 일이 많았는데 특히 하반기에는 9월 토론회에다, 10월 어머니큰잔치에다 각 지역 공동체 행사 등으로 정신이 없을 정도로 바쁠 것 같은데, 어떠세요.

부자: 그래서 지역에서 회의를 많이 하게 되는데 그 회의가 부담되는 것보다 회의를

통해서 합의되고 결의되어야만 일이 진행되기에 저는 힘이 들어도 꼭 필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승현: 처음에는 회의를 하면서 못 알아듣는 이야기도 많았고, 생소하거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적이 있었지만, 그래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점점 나아졌어요.

정은: 어째 선생님들 이야기를 듣다보니 몇 년씩 활동하신 선생님들 같이 이야기하시네요. 경력 선생님들에게서 교육을 많이 받으셨나봐요? 어려움을 이야기하자고 해도 순 지역자랑에 선생님들 자랑뿐이니.. 다른 지역을 의식해서 이야기 하시는 건 아닌가요? (모두 웃음)

부자: 그런 면도 있겠네요. 호호

같이 있는 분들이 3년에서 5년까지 활동해오신 분들로 그분들이 대개 지역과 중앙사업을 주로 고민해요.

지역과 중앙사업에 대해서 제가 잘 모르기에 뭐라 말할 수는 없어요. 특히 중앙사업과 같은 경우 실제적인 접촉을 하지 않으니 그분들보다 고민을 덜하게 되지요. 결국 저는 안살림을 알뜰하게 하자고 결심했어요.

정은: 이게 탁아소에서의 위치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되어가고 있을텐데 어때요. 어느 부분에서 보람을 느끼나요? 일하면서 갈등은 없는지요?

승현: 탁아소에 들어와서는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이 많이 있다는 것을 확인한게 가장 좋았어요. 엄마들과 만나는 것이 참 좋고 친구나 선배랑 만나는 것보다 엄마들이랑 만나서 이야기 하는게 훨씬 좋아요. 아직까지 불만 상황은 거의 없어요.

지금 양성교육 1년과정(야간)을 다니고 있는데 일반 원장, 교사, 운영할 사람들이랑 같이 받아요. 그렇지만 아무래도 거리감을 많이 느끼지요. 마구 매도해서도 안되지만 '돈' 때문에 탁아소를 운영하려고 생각하는 것도 같고.. 어린이집이 '시장화'된다는 것을 피부로 느끼고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탁아사업을 해 나갈 것인가가 고민이 되더라고요.

교육과정 중 '지탁연 탁아소'에 대해 대개 '후지다'는 결로 흔히 표현되더군요. 교육 내용, 환경 등.. 그러다가 아동교육 내용을 나가서 발표한 적이 있었어요. 너무 잘했다고 어느 탁아소에서 일하냐고 묻길래 '지탁연 소속의 온누리어린이집'에서 일한다고 했어요. 그후론 '지탁연 탁아소'운운하는 것은 쑥 들어갔어요. (웃음)

부자: 저는 아이들과 함께 있는 시간이 참 좋아요. 아이들은 집중시간이 참 짧잖아요. 처음에 들어와서는 아이들 모아놓는 것도 힘들더니 요새는 제가 맡은 4세반 아이들과 함께 하는 분반활동 중 1시간을 담화활동해도 아이들이 지루해 하지 않아요. 그런것에서 보람을 느낍니다. 처음에는 탁아소 일을 한다는 자체가 보람이었는데, 실제적인 생활속에서, 생활의 한 부분 한 부분에서 어느 정도의 성과를 찾게 되고 보람과 의미를 찾고, 느낍니다. 그래서 요새는 담화만 하고 싶어요. (웃음)

겸관: 저는 탁아소에 와서 말이 늘은 아이들과 일대일로 이야기할 때, 변화된 모습

을 느낄때 기뻐요. 지도한 내용에서 즉시 반응을 보이는게 아니라 이후 지내면서 변화되잖아요. 천천히.. 그래서 탁아소 생활은 인내심을 기르는데 좋은 직업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른 친구들이 일반 직업에 회의를 느끼는데 반해, 낮잠 잘 수 있고, 잘 먹고, 평일날 쉬고, 참 좋은 직업이에요.

지연: 그런면에서 보면 좋은데 탁아소에 있다보면 어떤 날은 하루종일 화장실 갈 시간조차 없을 때가 있어요. 더구나 영아들은 한시라도 눈을 돌릴 수가 없어서..

엄마들이 올 시간쯤 된 어느날은, 하루중에서 이때가 가장 힘이 들잖아요? 선생님들이 모두 지쳐서 저쪽에서 아이들이 뭔가 일을 꾸미는 것을 보고도 달려갈 힘이 없어서 이쪽에서 하지마, 하지마 하고 타일렀던 적도 있어요. 그러면 안되는데..

승현: 제 개인적으로는 탁아정책이나 제도에 관해 따리는 걸 느껴요. 아직껏은 심정적인 부분에 의해 활동하고 있는 것 같아요. 주체적인 입장해서 판단하고 활동하고 싶어요.

정은: 모두들 어려운 과정에서도 열심히들 활동하시고 계시는군요. 탁아소의 좋은 점, 어려운 점에 대해 대부분 알고 계신 것 같네요. 나이가 나이만큼 결혼도 큰 관심사일텐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들을 갖고 계신지..

지연: 나이가 차면서 결혼에 대해 고민을 하게 되요. 결혼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한 가정을 책임지고, 또 탁아일을 함께 하기에는 매우 힘이 들 것 같아서.. 그런 생각으로 주변의 기혼 탁아교사들을 보면 존경스러워요. 결혼하면 지금보다 배의 노력이 들어야 할 것 같아 부담이 있지만 저도 그렇게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계속 활동했을 때 엄마가 일을 하는 걸 보면 아이들에게도 긍정적 효과도 있을 테고.. 하지만 닥쳐 봐야 알 것 같아요.

부자: 구체적인 고민은 안되지만 기혼도 활동할 수 있는 조건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처우나 활동조건의 개선등.. 자기몸으로 낳아서 애를 키우면서 탁아소일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반면 어려움도 더 많을 것도 같고..

지연: 문제 있는 아이를 볼 때 실제로 부모가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고, 이제는 낳는게 전부가 아니라 어떻게 키워야 하는지가 많이 와 닿아요. 이성적 사고와 실제 행동과는 많이 다르지만, 내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할 지.. 이렇게 키워야지 하는 욕심도 있고..

겸관: 자모들도 미혼의 교사에 대한 불신 등이 있어요. 결혼하고 애도 낳아봐야 자모들을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은: 말이 나온김에 자모들과의 관계는 어떤지 이야기 나눠볼까요? 아이를 맡기는 입장에서 보면 새로운 선생님들에 대한 기대도 있고 앞서 말한신 것같이악간은 못 미더워 하는 면도 있을 것 같은데..

승현: 저는 엄마들과 이야기하면서 결혼에 대해 그동안 내가 피상적으로 생각해왔구나 반성이 들었어요. 가정생활에서 인격적으로 대우받지 못하고 구박받고 그것을 당연

스레 느끼는 엄마들을 보면서 '그건 아닌데'라는 생각도 들고..그런 이야기하면 제게 그러지요. '선생님은 몰라요, 시집안가서 그런 소리하지요' 그래요. 서로 이렇게 반박하고 이해 안되는 부분도 있지만, 저는 자모들과 함께 이야기 하는 시간이 가장 좋아요. 엄마들이 가지고 있는 많은 우여곡절과 사연들, 다양한 삶에 조금씩 내가 들어가고 마음을 풀고 만나는 관계가 되고.. 서로 힘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내게도 할 일이 있구나'하는 생각에 뿌듯하기도 하고..

지연: 저희 집 자모들은 23세부터 28세까지 있어요. 저는 미혼이고 자모들은 애기 엄마라 해도 서로 통하는게 많아요. 저희 집은 자모모임 말고 나이별로 계를 하는데 인간적인 친밀감을 가져서 좋아요. 내가 하는 이야기를 자모들이 공감하고..

부자: 오래된 선생님들과의 관계에서 친밀도가 높은 대신, 관성화되는 것도 있어요. 진지한 대화 등을 꺼리기도 하고.. 하루종일 아이보다 생긴 일 등을 이야기하는데 그것도 한 두번이지, 그런 상태가 계속될 때 허전함이 느껴져요. 질적으로 관계가 나아지지 않은 경우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일반 유치원 교사와 다르게 무엇이 있느냐? 다른 무엇인가 있어야겠다.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찾느냐? 그런 고민이 든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번 가을에 가정방문을 통해서 개인 개인과 친해지면서 일반적인 수준을 뛰어 넘는것이 이후의 소망이에요.

스스로 '탁아운동을 하러 들어온 사람'이라는 생각이 관계를 딱딱하게 만드는게 아닐까? 이런 경직성에서 탈피하고 자연스레 이야기를 하는 과정을 통해 이후 질이 높아지는 것, 이것이 과제이자 바램입니다.

경란: 상반기 평가 중 자모활동에 대한 전망을 이야기했는데 아이를 맡긴 단 기간에서의 전망을 내기는 어렵다는 의견들이었어요. 일본의 보육운동과의 비교속에서 우리나라의 특수한 상황은 엄마들이 '노동자'라는 의식을 갖지 못한 상태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그런 과정에서 아이를 맡기면서 만나는 어린이집의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조금이라도 변화한다면, 또 변화의 계기 등을 마련해주는 것이 우리의 몫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또 이런면에서 우리는 이뤄낸 것이 있다는 생각이고 그것이 성과라고 생각이 들어요.

승현: 저희 집은 자모들이 만든 '온누리 후원회'가 있어요. 소속된 자모들은 '뜻이 있는 일을 하고 싶다'고 강력히 희망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자모들의 바램이 커도 실제로 교사들의 여력이 없어서.. 구로지역은 각 탁아소의 자모들을 모아 '여성학 강좌'를 9월에 할 예정이에요.

지연: 저희는 신진교사들이 자모교육을 하나씩 해보자고 해서 이번에 '영유아보육법' 개정에 관한 교육을 했는데 이전의 느낌과 많이 달라졌어요.

경란: 저희집은 가정방문을 하루에 두집씩 두팀으로 나눠서 함께 했어요. 그러면서 9월 5일 대성리에 하루 놀다오기로 해서 많이 기대되요.

부자: 한편으로는 자모들의 상황이 많이 바뀐것도 고려해야 되요. 개인 장사에 세일직도 많고.. 생산직 맞벌이 부부의 아이를 받는 우리의 원칙이 있는데 우리도 자모들의 상황변화에 따른 내용과 사업의 변화가 되어야할 것 같아요.

연결되는 내용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탁아소들이 행사가 참 많잖아요? 그리고 대부분 자모, 자원활동가들이랑 같이 하는 행사들이고.. 애초에 의도는 그렇지 않다해도 자모들이 '동원의 대상'으로 위치지워지는 것이 있는 것 같아요. 엄마들이 좋아서 참석하는 건지 싫어도 교사의 얼굴봐서 하는지 알 수 없을 때가 많아요. 가끔씩 아무리 친해도 '교사는 교사, 엄마는 엄마'라는 구분이 지워지는데 그럴때마다 제 자신이 엄마들을 대하는 태도와 자세가 우선 고민되지요.

정은: 말씀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이 계시다면..

승현: 탁아소에서 생활하면서 가장 큰 어려움은 아무래도 교사이동과 그에 따른 수급문제입니다. 겨우 뜻을 맞춰왔다 싶으면 떠나고, 몇 안되는 교사로 일을 하려니까 개인 개인의 부담과 희생은 커지고 육체적으로 힘이 들다보니까 웃는 얼굴도 안되고.. 그렇지만 집단에 대한 의무에 소홀히 하지 않으면서 일하고 싶어요.

누구말에 있다는 생각은 거의 없고 소신껏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자 노력한다는 선생님들, 들어온 지 얼마 안되어도 자기 일로, 자기 집으로 느껴지는 탁아소에서 아이들과 함께 생활하는 기쁨으로 젊음을 불태우는 선생님들, 늦은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남은 일정을 다하기 위해 탁아소로 다시 들어가는 모습 너머로 일하는 부모들과 아이들의 웃음이 들려오는 것 같다.

탁아소 백과

/ 신생아 기형귀 교정

신생아의 기형적인 귀(耳)를 수술을 하지 않고 간단하게 교정하는 방법이 있다.

열을 가하면 부드러워져 모양을 만들기가 쉽고 식으면 그대로 굳는 성질의 치과성형재료인 '구타퍼차'를 이용, 아기의 귀를 정상으로 만든 후 알레르기가 적은 접착테이프로 1개월정도 고정시키는 방법.

신생아의 귀는 출생후 한달까지는 연골이 매우 약하며 원래의 모양을 회복하려는 회귀력이 약하기 때문에 일정기간 동안 원하는 모양대로 고정시켜두면 그대로 굳어진다.

출산시 아기의 귀가 산도에 눌리기 때문에 출생직후의 신생아는 반수 이상이 귀의 모양이 기형이 되는데 한달이내에 60~70%가,

1년이내에 80~90%가 정상귀의 모양을 되찾는다. 그러나 성장을 하면서도 귀가 평평하게 퍼져 있거나 '당나귀'처럼 접혀진채로 있는 어린이들도 있고 귀가 오그라든다든지 얼굴살속에 파묻혀 있다든지 하는 선천성 기형귀도 적지 않다. 종래에는 이런 기형귀를 교정하기 위해 5~10세 이후에 수술을 해야만 했으며 흉터가 남는 등 교정효과도 만족스럽지 못했다. 이번에 발표된 교정술은 생후 1주일이내에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1개월까지는 시술할 수 있는데 선천성 소이종이나 파묻힌 귀등은 종래의 수술방법을 적용해야만 한다.

(새건강신문)

1992년 고시 제 5차 유치원 교육과정 (2)

조선경(교육연구부)

차 례

1. 들어가는 말
2. 제5차 유치원 교육과정
 - 건강 ● 사회
 - 표현 ● 언어
 - 탐구

지난 호에 이어 제 5차 유치원 교육과정 중
표현생활, 언어생활, 탐구생활을 실습니다.
(편집자 주)

3) 표현생활

‘표현생활’은 유아의 생각과 느낌을 다양한 활동을 통하여 자발적, 창의적으로 표현하도록 함으로써 정서적 안정감과 심미감을 기르기 위한 영역이다.

< 이 영역의 목표는 >

- . 정서적 안정감과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게 한다.
- .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창의적으로 표현하는 능력을 기르게 한다.
- . 자연과 다양한 작품에 대하여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게 한다.

< 내 용 >

	1 수 준	2 수 준
<정 서> 1. 놀이나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2. 시작한 활동에 열중하여 성취감 가지기 3. 자신의 감정을 적절하게 표현하기 4. 생활 속에서 느낀 것을 권하고 나누기 5. 자신과 다른 사람의 생각과 표현을 존중하기	놀이나 활동에 관심과 흥미를 가지고 참여한다. 자신의 감정을 자연스럽게 표현한다. 생활속에서 느낀 것을 서로 나누는 경험을 한다.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표현에 흥미와 관심을 가진다.	스스로 선택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상황에 알맞게 표현한다. 생각이나 표현이 다른 점을 인정하고 존중한다. 자신과 다른 사람의 작품을 소중히 다룬다.
<표 현> 6. 여러가지 소리 만들어보기 7. 노래부르기 8. 리듬악기 다루기 9. 그림 그리기	여러가지 소재를 이용하여 소리를 만들어 본다. 여러가지 노래를 즐겨 부른다. 여러가지 도구로 자유롭게 그린다.	간단한 노래나 노랫말을 만들어 본다. 여러가지 도구를 사용하려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자유롭게 그린다. 일상생활에서 경험한 재미있는 일을 그림으로 표현한다. 동화를 듣고 그림으로 표현, 만들고 꾸며본다.
10. 만들기와 꾸미기 11. 다양한 소재를 활용하여 신체로 표현하기 12. 신체를 이용하여 다양한 모양을 동작으로 표현하기 13. 다양한 소재를 활용하여 신체로 표현하기 14. 극놀이로 표현하기	여러가지 재료를 이용하여	만들고 꾸며본다.
<감 상> 15. 여러가지 소리 듣기 16. 다양한 종류의 음악 듣기 17. 자연과 사물을 감상하기 18. 다양한 조형작품을 감상하기 19. 물의 움직임을 보고 즐기기 20. 다양한 종류의 춤 감상하기 21. 극놀이 감상하기 22. 전통 예술에 친숙해지기	자연이나 주위환경에서 나는 소리에 관심을 가지고 들어본다. 다양한 종류의 음악을 듣고 즐긴다. 우리 가락을 듣고 즐긴다.	주의깊게 듣고 구별한다.

4) 언어생활

'언어생활'은 유아의 언어사용능력을 향상시켜 즐거운 언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영역이다. 이 영역은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에 관심 가지기'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읽기 쓰기'에 관심 가지기'는 국민 학교 단계의 글자 교육이 아닌 점에 유의하며 글적거리기, 글자놀이, 그림책 보고 이야기 하기 등의 활동을 통해 정서적 긴장 없이 글과 자연스럽게 친숙해지는 과정을 거치도록 한다.

<이 영역의 목표는>

- .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듣고, 이해하는 능력과 태도를 기르게 한다.
- . 자기의 생각과 느낌을 말로 표현하는 능력과 태도를 기르게 한다.
- . 읽기와 쓰기에 관심을 가지게 한다.

<내 용>

내 용	1 수 준	2 수 준
<듣 기> 1. 말소리 듣기 2. 일상 생활에 관련 된 낱말과 문장 이해하기 3. 이야기를 듣고 이해하기 4. 듣고 따르기 5. 동화와 동시 즐겨 듣기 6. 바른 태도로 듣기	. 말소리를 정확하게 기초적인 낱말과 문장을 듣고 그 뜻을 이해한다. . 이야기를 듣고 기억나는 것을 말해본다. . 이야기를 듣고, 이해되지 않은 것의 내용을 듣고 따르다. . 동화와 동시를 주의깊게 듣는다.	. 듣는다. . 여러가지 낱말 문장을 듣고 -- 여러가지 낱말을 듣고, 관계를 이해한다. . 이야기를 듣고, 중심내용을 말한다. . 이야기를 듣고 자기의 경험이나 생활과 관련시켜 이해한다. . 많은 것에 대하여 묻는다. . 여러가지 내용의 말을 듣고 따른다. . 반응을 보이며 주의깊게 -- 남을 방해하지 않고 듣는다.
<말하기> 7. 바르게 발음하여 말하기 8. 일상생활에 관련 된 낱말과 문장 말하기 9. 묻는 말에 대답하기	. 교사가 분명한 발음으로 들려주는 동화 동시를 듣고, 내용이나 느낌을 나름대로 말한다. . 기초적인 낱말과 문장을 말한다. . 묻는 말에 대답한다.	. 알맞은 속도와 크기의 목소리로 말한다. . 여러가지 낱말과 문장을 활용하여 바르게 말한다. . 묻는 말에 바르게 대답한다.

10. 경험, 생각, 느낌 말하기 11. 상황에 따라 말하기	. 경험한 것, 생각한 것, 느낀 것을 나름대로 말한다. . 함께 주제를 정하고 이에 대하여 말한다. . 듣는 사람과의 관계, 인원 수 등에 맞게 말한다. . 장소에 알맞게 말한다. . 상대를 바라보며 자연스럽게 말한다. . -- 바른태도로 말한다.
12. 바른 태도로 말하기	. 상대를 바라보며 말한다. . 말할 차례를 지켜 말한다.
<읽기 쓰기에 관심 가지기> 13. 글자에 관심 가지기	. 주변의 글자에 관심을 가진다. . 주변에서 글자의 기초모양을 변별한다. . 글자의 기초가 되는 모양을 그린다.
14. 말과 글자의 관계 알기	. 그림책을 보고 이야기를 꾸며 말해본다. . 자기가 말한 낱말을 교사가 받아 쓰고, 읽는 것을 본다.
15. 글자로 놀이하기 16. 읽어주는 동화와 동시 즐기기	. 교사가 읽어주는 동화 동시를 즐겨 듣는다. . 읽어 준 글을 자기 생각대로 순서지어 말해본다.
17. 책에 관심 가지기 18. 쓰기 도구에 관심 가지기	. 책에 관심을 가지고 친숙해진다. . 여러 종류의 쓰기 도구를 사용해 본다.

. 자기가 한 말을 교사가 받아 쓰고, 읽는 것을 보고, 말은 글로도 그 뜻을 나타낼 수 있음을 안다.
 . 간단한 내용의 동화 동시의 글을 짚어가며 읽어주는 것을 보고 듣는다.
 . 다양한 글자놀이를 즐긴다.
 . 동화 동시를 즐겨 듣고, 짧은 동화 동시를 꾸며 본다.
 . 읽어 준 글의 내용을 순서대로 말하고, 다음 이야기를 꾸며서 말한다.
 . 책을 좋아하고 소중하게 다룬다.
 . 여러가지 종류의 쓰기 도구를 바르게 사용하는 경험을 가진다.
 . 자기 이름과 가까운 친구의 이름을 써 본다.

5) 탐구 생활

'탐구 생활'은 유아들이 주위의 여러가지 사물과 현상에 대하여 호기심과 관심을 가지고 탐구하도록 하여, 합리적인 문제 해결 능력과 태도를 기르기 위한 영역이다.

이 영역의 교육활동은 어떤 현상에 대한 정보, 지식, 개념을 학습시키는 것보다는, 그 결과에 도달하기까지의 사고과정 및 탐구 활동을 경험해 보게 하는 것에 중점을 둔다.

유아들이 자극받고 도전할 수 있도록 여러 수준의 활동자료를 풍부하게 제공해 주어야 한다.

<이 영역의 목표는>

- 주변 환경과 자연 현상에 대한 과학적 사고의 기초 능력과 태도를 기르게 한다.
- 다양한 조작 활동을 통하여 논리 수학적 사고의 기초 능력과 태도를 기르게 한다.
- 과학적, 논리 수학적 사고를 기르도록 하여,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과 태도를 기르게 한다.

<내 용>

내 용	1 수 준	2 수 준
<과학적 사고> 1. 물체의 성질 탐색하기 2. 물질의 변화 과정 관찰하기 3. 물체의 움직임 관찰하기 4. 우리 물에 대해 관심 가지기 5. 생물에 대해 관심 가지기 6. 주변 환경에 대해 관심을 가지기 7. 자연 현상 관찰하기	주변의 여러가지 물체에 관심을 가진다. 물질의 변화에 호기심을 가진다. 여러가지 물체의 움직임을 관찰해 보고 호기심을 가진다. 우리 물의 주요 부분의 이름을 안다. 주변의 동물과 식물에 대하여 관심을 가진다. 주변환경에 관심을 가진다. 여러가지 자연 현상에 대하여 관심을 가진다.	주변의 여러가지 물체를 관찰하고, 그 성질을 알아본다. 다양한 활동을 통하여 물질의 변화 과정을 관찰하고 비교. 물체의 여러 움직임을 여러가지 방법으로 관찰하고 비교. 우리 물의 주요 부분의 이름과 기능을 알아본다. 동물과 식물의 특징과 생활에 대하여 관심을 가진다. 동식물의 성장 과정을 안다. 동식물의 사는 곳을 알고 보호한다. 주변의 깨끗한 곳과 더러운 곳을 알아본다. -- 관찰하고 그 변화에 관심을 가진다.
<논리 수학적 사고> 8. 사물 분류하기	사물의 같고 다름을 살펴본다. 한 가지 준거로 사물을 분류	사물의 같고 다름을 살펴보고, 사물의 여러 가지 성질을 알아본다. 두 가지 이상의 준거로 사물을 분류해 본다. 분류된 사물을 보고 분류의 준

9. 사물의 순서짓기	해 본다. 크기가 다른 두 개의 사물을 비교해 본다. 두세 개의 사물을 크기에 따라 순서대로 놓아 본다.	거를 찾아본다. 사물의 수량이 많고 적음을 변별해서 말한다. 사물을 한 가지 준거에 따라 순서대로 놓아 본다. -- 변별해서 말한다.
10. 수의 기초 개념을 이해하기	사물의 수량이 많고 적음을 보고 변별한다. 일대일 대응으로 두 집단의 수를 짝 짓는다. 사물의 수를 세까지 센다.	일대일 대응으로 짝지어본 후, 수의 같고 다름을 비교한다. 사물의 수를 열까지 세고, 숫자를 안다. 일상 생활에서 사용되는 수의 의미에 관심을 가진다. 사물의 수량을 더해 보고 덜어 내 보는 구체적인 경험을 한다. 물체를 나누어 보고, 부분과 전체를 비교해 본다. 물체를 같은 크기로 나누고, 그 부분들을 모아 전체를 만들어 본다. 사물들을 크기, 길이, 높이 등에 따라 비교한다. 임의의 단위를 사용하여 여러 가지 사물의 길이, 높이, 무게, 넓이 등을 측정해 본다. 일상 생활 속에서 일어난 일의 순서를 알아본다. 사물의 앞뒤를 구별한다. 왼쪽, 오른쪽을 구별한다. 구체물을 통하여 여러가지 모양을 변별한다. 동그라미, 네모, 세모의 모양을 이용하여 자유롭게 구성하여 본다. 일상 생활에서 친숙한 자료를 모아 본다. 모은 자료를 정리하여 그림이나 표로 나타내 본다.
11. 일상생활에서 수 활용하기	일상 생활에서 사용되는 여러 가지 수에 관심을 가진다.	
12. 전체와 부분 경험하기	물체를 나누어 본다.	
13. 기초적인 측정과 관련된 경험 가지기		
14. 시간에 관한 기초 개념 가지기	하루 일과의 순서를 알아본다.	
15. 공간에 관한 기초 개념 가지기	나를 중심으로 위아래, 앞뒤를 구별해 본다.	
16. 기본 도형 인식 및 구성하기	생활 주변에서 여러가지 모양을 찾아본다. 동그라미, 네모, 세모의 모양에 관심을 가진다.	
17. 기초적인 통계에 관련된 경험 가지기		
<창의적 사고> 18. 특이한 상황에 관심 가지기 19. 다양하게 사고하기 20. 독특하게 사고하기	일상 생활에서 일어나는 특이한 상황에 호기심을 가진다. 일과 사물에 대하여 여러가지로 생각해 본다.	-- 관심을 가지고 접근해 본다. 일과 사물에 대하여 다양한 관점으로 생각해 본다. 일과 사물에 대하여 남과 다르게 생각해 본다.

<연재 끝>

유아체육에 관하여

아동교육본과

‘유아 체육’하면 낯선 낱말일 수 있다. 통상 음률활동, 율동활동등으로 혼용해서 쓰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유아체육은 ‘신체활동 자체를 중심에 놓는 활동’을 말한다.

유아에게 다른 놀이만큼 몸을 움직이게끔 하는 것은 중요하다. 왜냐하면 이 시기의 적절한 신체활동은 성장과 발달의 촉매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아래 내용은 지난 8월에 방송통신대 유아교육학과에서 개최한 교육세미나의 내용의 일부이다. 탁아소내 교육활동에 참고가 되도록 내용을 실는다.

유아체육의 필요성

탁아소에서 아이들은 실재없이 움직인다. 뛰고 던지고 튕구는 등 몸을 움직여 노는 활동을 즐긴다. 탁아소 환경에 바깥놀이 시설이 마련되어 있다면 큰 문제가 되지 않겠으나, 그렇지 않다면 아이들이 충분히 몸을 움직이지 못하고 좁은 실내에서 조용히 해야 한다는 것은 아이에게 무리이다.

유아가 잠시도 가만히 있지 않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다. 이런 특징을 충분히 살리고, 적절한 신체 활동을 제공한다면 아이의 발달과 성장의 촉매역할을 하며 적절한 운동은 실내에서 아무때나 뛰는 행동을 감소시킬 수 있다. 실외 공간이 없을 때는 실내에서 시간을 정해놓고 실내의 모든 물건을 치우고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아이들과 신체 활동을 한다면 부족하나마 아이의 신체발달을 촉진시킬 수 있는 활동이 될 것이다.

유아 체육이 무엇인가?

적목을 가지고 놀이를 하는 것도 신체 활동의 한 범위이고, 바깥놀이는 더할 나위없이 좋은 신체활동이다. 이외에 교사와 함께 하는 율동, 음률 활동역시 신체 활동의 한 범위이기는 하나, 신체 활동의 모든 부분을 담았다고 할 수는 없다. 율동은 심미감 획득과 자신의 감정을 몸으로 표현하는 활동이라 한다면, 유아체육은 유아가 신체의 여러 기

간을 자유자재로 움직임으로서 신체 발달과 인지발달, 여러 기본 운동기술(걷기, 달리기, 뛰기, 굴리기, 뺨기, 밀기, 당기기, 던지기 받기, 치기, 차기)등을 획득하는 것을 말한다.

근래에 교육계에서는 율동이란 말 대신 동작활동이라는 표현을 쓴다. 이는 단순히 교사의 율동 모방이 아닌 신체활동에 대한 강조와 아동의 창의성을 증가시키는 교육이어야 함을 강조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결국 유아체육과 동작교육은 교육목표가 동일하다고 볼 수 있으며, 다만 어느 영역 즉 신체활동, 창의적 표현활동 어느 곳에 강조점을 두느냐에 따라 영역이 구분된다고 할 수 있다.

유아의 신체 발달과 운동 발달

유아에게 신체활동을 제공하기 이전에 유아의 신체발달과 운동발달을 살펴보자.

유아기는 신체발달이 가장 왕성히 나타나는 시기이다.

유아의 신체발달의 특성은

1) 신체발달 순서는 위에서 아래(머리에서 꼬리로), 중앙에서 밖으로(몸통에서 사지 그리고 손가락, 발가락) 발달해 간다는 것이다.

2) 모든 유아가 똑같은 속도로 발달하는 것이 아니고 크기는 약 2년 정도 차이를 갖는다. 즉 6세아라면 발달 정도에 따라 4세 - 8세의 발달 정도를 보이기도 한다.

3) 신체 체 속성에 의해 발육발달의 형태는 다르다. 우선 신장의 급격한 증가후 체중의 증가, 그 다음으로 근육의 증대를 보인다.

특히 유아기는 키의 성장을 급속하게 보이는 시기이므로 지구력, 골격등과 관계된 신체 활동은 무리하게 시키지 않는 것이 좋다.

유아기 운동발달 특성은 기본 운동패턴이 서서히 나타나는 시기이다. 기본 운동형태란 일상생활에서 필수적인 운동형태인 걷기, 달리기, 멀리뛰기, 뛰기등을 말한다. 발달정도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2~3세 제 1차 발달단계, 4~5세 2차 발달단계 6~7세에 성숙단계의 상태를 보이는 것이 일반적이다.

유아체육 프로그램개발시 유의점

1) 이러한 신체 발달과 운동발달의 단계를 고려해서 유아체육 프로그램을 짜야한다. 유아의 과거 경험 능력을 감지한 후 쉬운 내용부터 시작하며 그 내용 또한 즐거워야 한다. 특히 이 시기의 신체 활동이 운동기술을 배우는 것이 목적이 아니므로 아이 스스로가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내용이어야한다.

2) 또한 일일교수계획을 세울때는 우선 목표설정을 분명히 한다.

3) 그리고 목표에 맞는 내용을 설정하고 아이가 움직이고자 하는 욕구가 생기게끔 몸을 준비하게끔 2~3분정도 준비운동을 한다. 준비운동이 끝나면 그날의 주 운동을 15~20분정도 실시하며 마지막 5~10분 정리 운동시간을 잡는 것이 기본이다.

※ 지도시 주의할 점은

신체활동의 주 목적이 어떤 기술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움직임을 통한 스스로의 문제 해결 방법을 통하여 상상력, 창의력을 도모하고 신체 조정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므로 움직임을 제한적이어서는 안되며 자유로운 상태에서 행해져야 한다. 교사가 어떤 시범을 보이고 아이가 따라하는 것이 아니고 어린이 중심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교사는 옆에서 보조 역할만 하면 된다.

유아는 아직 근육의 미분화가 안된 상태이므로 필요치 않은 근육을 많이 사용하여 쉬 피로를 느낀다. 그러므로 계속적인 힘든 움직임은 피하고 움직임 사이 사이에 짧은 휴식을 취하게 한다.

신체활동을 할 때 교사가 언어적 자극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면, 직선을 그어놓고 '걷기' 활동을 한다고 하자. "자! 우리 이 선을 따라 걸어보자. 이번에는 뛰어볼까?" 이 얼마나 무미건조한 일일까?

이렇게 해보는 것이 어떨까?

"얘들아, 이 선은 외나무다리야. 이 밑에서는 악어가 입을 벌리고 있어. 한 번 지나가 볼까? 조심해야한다." 아이들은 떨어지지 않으려고 애를 쓰며 걸어갈 것이다. '짹'은 아이는 일부러 떨어져서 해업을 쳐서 도망나올지도 모른다.

유아의 상상력을 키우는데 교사는 끊임없이 자극제가 되어야 한다.

유아체육실제

◇ 맨 몸으로 할 수 있는 활동 ◇

1) 움직임을 통해 개념배우기

누워 있는 자세에서 '가장 넓게 만들어 보자' 라던가 '가장 좁게 만들어보자' 등 여러 가지 형태의 모습을 요구하여 그 안에서 각각의 개념을 익힌다.

뛰기경우도 그냥 뛰어 보자가 아니라 몸을 길게 해서 뛰어보던가 낮게 해서 뛰어보게 하고 달리기의 경우도 소리안나게 뛰어보기, 소리나게 쿵쿵 뛰어보기등을 한다.

2) 신체 동작 따라하기

먼저 팔, 다리를 각기 사용하여 할 수 있는 활동 예를 들면 왼팔은 앞으로 오른팔은 옆으로 해 본다. 익숙해지면 팔과 다리를 함께 사용하여 할 수 있는 활동을 한다. 팔은 앞에서 이야기한대로 하고 옆으로 걷는다던가 오리걸음을 할 수 있다. 이 활동은 단기 기억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3) 말한대로 해보기

신체의 이름과 하는 말을 이해하고 주의집중하는데 도움이 된다.

'무릎을 가장 낮게 해볼래?', '엉덩이를 제일 낮게 한번해 볼까?' 등 각 신체를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 여러가지 형태의 모습이 나올 수 있다.

3) 길 따라 가기

바닥에 선을 다양하게 그려주고 걷게 한다. 차츰 팔의 모양이나 바꾸고 걷게 하거나 뒷꿈치를 들고 걷게하는 등 다양한 동작으로 걷게 한다.

4) 미치광이 발바닥

바닥에 발모양을 아무렇게나 붙여둔다. 모양이 뒤죽박죽인 발모양을 따라 걷게 한다.

◇ 물건을 이용해서 하는 활동 ◇

1) 풍선을 이용한 활동

처음에는 마음대로 놀게 둔다. 어느 정도 식상해지면 주의를 모아 풍선을 쳐 올려보 자고 한다. 손으로 토스를 대부분할 것이다. 이후에는 손이외에 다른 것으로 해보자고 제안한다. 그러면 머리, 발등을 이용해서 다양하게 풍선을 쳐올릴 것이다. 풍선을 발에 묶어 다른 사람 것 터트리기등을 해 볼 수도 있다.

2) 목표물에 던져 넣기

바구니나 홀라후트속에 공이나 풍선던져 넣기를 한다. 이 활동은 힘의 조정능력을 길러 줄 수있다.

3) 후프를 이용한 활동

후프를 쪽 이어놓고 건너기를 한다. 점핑 건너기나 나비처럼 건너기등을 해 볼 수 있고 친구가 하지 않은 모양으로 가기 등도 할 수 있다.

4) 공을 이용한 활동

천정에 매달린 공을 이용한 활동- 매달린 공을 잡아도 보고 차기, 던지기, 방망이로 쳐보기를 한다.

공 물고 다니기 - 막대기와 공을 주고 장애물을 만들어 공 물고 다니기를 한다.

5) 고무줄 넘기

세울 수 있는 나무에 흠을 파고 고무줄을 끼운다. 여러높이의 흠을 파서 높이조절을 할 수 있게 한다. 그 고무줄을 여러가지 방법으로 넘게 한다. 밑으로 기어서, 위로 뛰 어서, 손을 머리에 얹고 넘기 등 여러가지가 있다.

실제로 유아에게 지도할 때 중요한 것은 교사가 상식에서 벗어나 다양한 동작을 하게끔 해야 한다. 다른 사람 발목에 묶인 풍선 터트리기를 할 때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손을 엉덩이에 놓고 한다던지, 평균대를 건너더라도 처음에는 걸다가 언어적 자극을 해서 강아지 똥이 밑에 있는데 어떻게 가야하나 등 유아의 다양한 신체활동을 유도해야 한다.

우리 탁아소 빌미 오손도손 어린이집의 '떡꼬치'

아이들 식단을 짜다보면 특히 간식의 경우 밀가루를 이용해야 하는 음식이 많다. 그래서 밀가루가 들어가지 않은 음식을 찾아내야 하는 어려움을 겪는데 고민 끝에 찾아낸 음식이 바로 '떡꼬치'다.

흰 떡, 어묵, 오이, 맛살을 한 입 크

기로 썬 다음 꼬치에 색을 맞추어 쥘다. 그 꼬치를 기름을 두른 후라이팬에 구워낸다. 그냥 주어도 잘 먹지만 케첩을 곁들이면 더 좋아하며 과일을 함께 주면 영양면에서도 좋다. 떡꼬치를 손에 손에 들고 재잘거리는 아이들의 모습은 보는 것 만으로도 즐겁다.

개특위

용도변경에 관하여

영유아보육법 개정특별위원회

올해 4월 군산지역 '해뜨는 동산 놀이방'은 공간을 확장해서 이전하여 어린이집으로 인가를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는 과정에서 노유자시설로의 용도변경을 해당 관청에서 알려줬으며, 인천의 새싹 어린이집 등의 경우도 이와 유사하다. 노유자시설로 용도변경을 위해서는 나름의 조건을 갖춰야 하며 이를 위해 경비가 든다는 것이다.

개특위 회의에서 이를 알아보는 과정에서 위 탁아소가 속해 있는 군산, 인천지역만이 아니라 지난해에 개정된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민간보육시설은 노유자시설로의 용도변경을 해야된다는 것이 밝혀졌다. 다음의 내용은 노유자시설로의 용도변경에 관해 그간에 입수한 자료를 중심으로 정리한 것이다.

노유자시설은 아동시설, 노인복지시설, 다른 용도로 분류되지 않은 사회복지시설을 말한다.

우선 '노유자 시설'이란 낯선 용어에 대해서 알아보자.

노유자 시설은 '아동시설, 노인시설, 다른 용도로 분류되지 아니한 사회복지시설'을 말한다. (건축법 시행령 제2조(용어정의), 별표(용도분류))

탁아소가 노유자시설에 포함이 된다면 이중 어디에 속할까. 가장 근접해 보이는 아동시설에 대한 용어정의를 살펴보자.

아동시설은 '아동복지시설, 유치원, 세마을 유아원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이라고 정의되었다. 이 내용으로 볼 때 탁아소(보육시설)라는 명확한 명칭은 되어 있지 않으나 아동시설에 보육시설이 포함된다.

우리는 앞서 '노유자시설로 용도변경'하라는 행정지도에 대해서 우선 다음과 같은 의문이 들었다.

그동안 행정담당자로부터 보육시설이 노유자시설이라는 것을 왜 듣지 못하였는가.

자문을 구하러 만난 건축관련자들은 하나같이 '현재 노유자시설로 용도변경을 하라고 지침이 내려오기 전까지 보육시설은 무엇으로 있었느냐?'고 의문을 제기하였다.

무엇으로 있었는가?

탁아소는 탁아소로 있었을 뿐이었는데..

의문을 풀기 위해 우선 용도변경에 대한 근거조항을 영유아보육사업 지침에서 찾아보았다.

민간보육시설의 노유자시설로의 용도변경

우선 그 근거 조항을 살펴보면

보육사업 지침 12 P (보사부, 1993)

- 0 건물용도와 지역에 관계없이 보육시설을 설치 할 수 있도록 조치 ('92.5.30)
-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등 모든 용도지역안에서 보육시설 설치가능 (건축법 시행령 제 2조)
- 가정보육시설의 경우 단독주택 및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는 건물의 용도변경없이 설치가능 (건축법시행령 제2조 및 제 14조)

그렇다면 1992년 5월 개정 이전의 건축법에서는 어떠했는지를 살펴보자.

그래서 1992년도 건축법을 들춰보았다.

거기에도 노유자시설이라는 용어가 있었으며 다만 아동시설을 '아동복지법에 의한 아동복지시설, ..(상동)..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 아동복지시설을 '아동복지법에 의해 규정'한 것만이 다를 뿐이었다.

다시 건축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살펴보았다. 또한 자치구별 조례 중 건축관련 조례를 참조하여 살펴보았다. 대개의 경우 상위법보다도 조례가 더 자세하고 규제력이 강하다고 하는데 서울시 조례를 살펴보았다.

- 건축법 시행령 별표에 의하면 지역은 11개정도로 구분이 된다.

1> 아동복지법에 명시된 아동복지시설은 다음과 같다.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조)

'아동상담소, 보육시설, 조산시설, 정신박약아 보호시설, ... 모자보호시설, 탁아시설, 아동요양시설, 교회시설, ... (요약)'

일반주거, 준주거, 전용주거 / 중심상업, 일반상업, 근린상업, 유통상업 / 준공업 / 보전녹지 / 생산녹지지역 / 자연녹지지역 /

위 지역에서는 노유자시설이 명시되어 있어 지침에서 밝힌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등 모든 용도지역안에서 보육시설 설치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다만 전용주거, 중심상업, 근린상업, 유통상업, 전용공업, 일반공업, 준공업, 보전녹지 지역내에서는 건축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이전의 상업지역, 공업, 주택 지역에서 보육시설의 설치를 규제해 왔던 것을 비추어왔을 때 보사부에서 주장하는 '보육시설의 설치 완화'라는 측면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언뜻 보기에 문제가 없어 보이고 가정보육시설의 설치를 촉진하는 조치로 받아들여지는 위 지침의 두번째 항이 문제이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정리 해보면

- 민간, 국공립, 직장 보육시설은 노유자시설이다.
- 노유자시설 기준에 따라 새로 신축한 경우가 아닌 다음에는 일반 건축물에 들어갈 경우에는 그 일반 건축물이 주택, 상가.. 등의 용도로 쓰여졌던 것을 '노유자'라는 용도로 바꿔야 한다.
- 그러나 가정보육시설은 단독주택에 포함되기 때문에 주택으로 갈 때라도 같은 주택개념으로 보기에 노유자시설로 용도변경을 하지 않는다.

노유자 시설로 용도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경비와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예를 들자.

성동구에 있는 '오손도손 어린이집'의 건축물 관리대장을 떼어보면 구조는 '기와'에 주용도는 '주택'으로 명시되어 있다. 이렇게 주용도가 '주택'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 '노유자시설'로 용도변경해야하고 이에 대한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²⁾

건축물의 용도변경 행위를 건축물의 건축으로 보고 허가대상으로 삼는 이유는 지역 또는 지구에 있어서 용도를 규제하고 있는 것에 대해 위반을 했는지, 안했는지를 확인해야 하기 때문이라 한다. 또한 용도에 따라 규정하고 있는 건축물의 내화구조의 기준 또는 방화지구내의 건축구조의 기준, 피난 시설 등에 관한 위반여부를 확인해야 하기 때문이다.

위 이야기는 우리 탁아소들이 용도변경 허가를 받기 위해 '나름의 조건'을 만족

2) 건축법 시행령 제14조(용도변경) ①법 제 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건축기준을 크게 달리 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건설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시장등에게 신고함으로써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중간생략)

해야만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나름의 조건은 무엇인가?

설치에 있어서 아동시설을 위락시설, 공연장,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숙박시설, 유스호스텔, 공장, 자동차정비공장 등 화재발생 우려가 있고 환경을 악화시킬 위험이 있는 이런 시설과 같은 건물에 설치할 수 없게 하고 있다. 또한 노유자 시설과 판매시설 (도매시장, 소매시장) 설치를 금지하는 것이다.

용도 변경을 한 사례를 보자.

올해 이전한 부천의 '아이사랑 어린이집'의 경우를 보자.

같은 건물 지하에 노래방이 들어왔는데 노래방은 '위락시설'로 구분되어 있어 용도변경을 할 수가 없어 둘 중에 하나가 문을 닫아야 할 지경이었다. 그러나 8월 이후(지역마다 약간씩 시기가 다름) 노래방이 근린생활시설로 바뀌면서 용도변경을 마무리지었다. '아이사랑 어린이집'의 경우를 더 살펴보자.

탁아소는 주인과 전세계약서를 맺으면서 용도변경에 따른 법적, 경제적 문제에 대해 모두 이 탁아소가 책임질 것을 서약하면서 간신히 집주인의 동의를 받아내었다.

동의를 받아낸 후 용도변경을 하기 위해 구청과 건축사무소를 쫓아다니기를 몇 개월.. 건축사무소에서는 소방시설은 소방설비업체에서 해야 한다며 알선해줘서 설비업체를 찾아가니 설비업체에서 부르는게 값이고, 사정사정해서 100만원에서 55만원까지 값이 내려갔다.

설비된 시설을 보고 소방서에서 (검사) 필증을 내주면 이 필증을 받아서 건축사무소에 갖다주면 건축사무소에서 구청을 찾아가서 탁아소 건축관리대장의 '주택'을 노유자시설'로 변경된 서류로 만들어 건축과에서 가정복지과로 통보한다. 마무리 단계로 '아이사랑 어린이집'이 가정복지과와 용도변경에 관한 마무리 절차를 밟았다.

29명의 이 탁아소가 소방시설을 설비하고 용도변경을 하는 절차를 밟는데 들었던 총 비용은 95만원.. 이것도 아주 싸게 한 것이라고 한다.

(아이사랑 어린이집 세들어 있던 건물은 노유자 시설이 갖추어야 할 소방시설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절차가 길다. 건물자체에 이미 설비가 되어 있다면 건축사무소에서 서면 처리 가능하다.)

그렇다면 건축사무소와 설비업체, 소방서는 어떠한 기준으로 이 과정을 밟았는지..

여러 지역의 사례를 살펴볼 때 통일된 기준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건축과 관련된 인, 허가 사항이 부정, 부패가 가장 심하고 뒷거래에 의해 진행되는 것이 많으며 이는 법령에 대한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이다. 많이 쓰는 법 조항의 경우에는 판례가 있어 그래도 나은 편이나, 잘 안쓰여지는 특히 노유자 시설처럼 특수한 몇 시설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관청이 해석하고 건축사무소가 해석하는 것이 달라져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일때가 많을 것이다.'는 건

축간연자들의 말이 실감이 난다.

따라서 현재 우리가 알아 볼 수 있는 한도내에서 그 기준을 추적(?) 할 수 밖에 없다. (별첨 자료 1> 참조 바람)

시설 기준으로 직통계단 및 피난시설(3층 이상의 층에서 바닥면적 200제곱미터(60 평 이상일 경우 해당), 내화구조(2층의 바닥면적이 400제곱미터일 경우와 3층이상의 경우), 소방시설강화* (바닥면적 200제곱미터)등의 규정이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 탁아소들의 현실속에서 볼 때 건물의 규모에서 거의 규정 받지 않는다고 보여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를 얻어 이전한 어린이집에 터무니 없이 큰 주차장을 만들라고 하면서 지키지 않을 경우 행정적 제재를 가하겠다는 입장을 가지기도 한다.

관계 부처와의 협의 속에 보사부는 해결방안을 제시해야

용도변경에 관해 알아보려고 담당구청에 문의를 하여도 주무부서인 가정복지과에서는 건축과 소관이라며 모른체 하거나 용도변경을 하기 위한 여러 과정에서의 행정지도에 있어 미흡한 실정이다.

지난 4월경에 보사부 가정복지과에 '용도변경으로 인해 탁아소들이 타격을 받을 것이다. 용도변경이 무엇이냐'는 내용으로 전화 문의했을 때 담당자는 '학원과 같이 열악한 상황으로 아이를 돌보려고 하느냐, 그러다 불이라도 나면 어쩌냐, 소방시설 등을 갖춰야 한다. 운영을 못하는 곳은 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것은 '용도변경이라는 체'로 탁아소를 거르는 것, 즉 탁아소의 난립을 막겠다는 건 아닌가 하는 추측을 낳게 한다.

이런 추측은 놀이방으로 있다가 확장 이전하여 어린이집으로 인가를 받으려다 용도변경건에 걸려 그대로 놀이방으로 유지하게 된 군산 '해뜨는 동산 놀이방', 북부 '동근나라 어린이방' 등의 사례에서 확실해진다.

늘어나는 보육아동의 수요에 따라 탁아소의 양적인 확충을 계획하고 시설 확충의 90%를 민간어린이집과 놀이방으로 충당하겠다는 보사부의 계획 대로라면 '용도변경'은 분명히 탁아소 설치를 위한 촉진책이 아닐 뿐 더러 운영중인 탁아소도 문을 닫을 고사책이다.

올해 본 회에서 실시한 '전국 6대도시 보육시설에 대한 실태조사'에서 밝혀진 내용을 보자.

노유자시설로 용도변경되어야 함을 알고 있는나는 물음에 민간보육시설 응답자의 47.1%만이 알고 있다고 대답을 했으며 나머지 52.9%의 경우에는 용도변경에 대해 알고 있지 못한 걸로 드러났다.

또한 노유자 시설로 변경되어 있는가에 대해 물어본 결과, 변경되어 있다(24.7%), 변

경할 계획이다(32.5%), 변경하지 않겠다 (42.9%)로 응답했다.

특히 변경하지 않겠다고 한 이유에 대해서는 건물 주인의 동의를 구할 수 없다(47.1%) 비용부담이 크다 (20.6%), 건물 자체의 하자로 용도변경이 불가능하다 (20.6%), 용도변경이 필요없는 가정보육시설로 전환할 계획이다 (2.9%), 그만 둘 것이다(8.8%)로 나타났다.

이런 상황에서 전체 어린이집에 용도변경에 대한 공문이 시달된 인천시 등을 제외한 나머지 시.도는 용도변경에 관한 방침이나 움직임을 갖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우리는 용도변경에 대해서 보사부가 정확하게 알고 있는가? 또는 보사부에서 알고 있다하더라도 건축부 소관이기에 그대로 두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을 가질 수 밖에 없다.

따라서 보사부는 '용도변경'에 관해 일어나는 문제들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여 통일된 세부지침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건설부와 협의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며 특히 건설부가 유치원과 보육시설에 대한 구분이 없는 가운데 운용하는 '용도변경'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여야만 할 것이다.

(자료를 찾아보면서 들었던 생각은 20-30명 규모의 민간어린이집을 대규모의 유치원과 같은 개념으로 여기는 흔적을 발견하게 된다.)

'가정보육시설의 경우 단독주택 및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는 건물의 용도변경없이 설치가능 (건축법시행령 제2조 및 제 14조)'토록 조치한 것은 1992년 5월 이전까지는 전 보육시설의 용도변경이 행정적으로 되어왔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지난 1991. 7. 14 신고조치에 따라 전 보육시설이 신고를 할 당시에는 용도변경에 관해 아무런 언급이나 지도를 하지 않은 상태였다.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경과조치를 마감하는 1994년 1월을 앞두고 올해내에 용도변경에 관해 시급하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이로 인한 일어날 폐지, 이전 등의 혼란에 대해 책임을 져야만 할 것이다. 특히 보사부내 가정복지과에서 아동복지과로 보육사업의 주무부서가 바뀐 상태에서 책임소재가 더욱 불분명해 질 상황이기에 더욱 그러하다. *

별첨자료 1.>

보육시설의 시설기준

영유아보육법상 시설기준

0 보육실은 1층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사유로 2층이상에 설치할 경우에는 안전사고에 대비한 시설은 갖추어야 한다.

0 시설면적은 영유아 1인당 4.29제곱미터 이상으로 하고, 보육실은 영유아 1인당 2.64제곱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 개정 92.10.20 >

「별표2」 보육시설의 시설기준 (제7조 관련)

「별표3」 보육시설 종사자의 수

주택 건설 기준등에 관한 규정상 시설기준

보육시설은 충분한 일조 및 채광이 확보되고, 출입구, 변소 등은 다른 용도의 시설과 분리된 구조로 하여야 한다.

* 주택건설 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52조 제 2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치원 등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하여야 하며, 당해 주택의 준공시까지 건설되어야 한다. <개정 92.7.25>

1.유치원등의 유원장, 교실, 유희실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의 실에는 충분한 일조 및 채광이 확보되도록 할 것

2.유치원등은 학교보건법 제 6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로부터 50미터이상 떨어진 곳에 이를 배치할 것

3. 유치원등과 다른 용도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에 함께 설치하는 때에는 유치원 등의 출입구, 계단, 복도 및 변소등을 다른 용도의 시설 (사회복지관을 제외한다)과 분리된 구조로 하여 유아교육 또는 보육환경등이 보호될 수 있도록 할 것.

4.유치원 등과 다른 용도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에 함께 설치하는 때에는 유치원 등의 출입구, 계단, 복도 및 변소등을 다른 용도의 시설 (사회복지관을 제외한다)과 분리된 구조로 하여 유아교육 또는 보육환경등이 보호될 수 있도록 할 것.

직통계단 및 피난시설

직통계단은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계단에 이르는 보행 거리가 30m이하가 되도록 설

치하여야 하고, 3층 이상의 층에서 바닥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일 경우 직통계단을 2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 건축법 시행령

제34조 (직통계단의 설치기준) ①건축물의 피난층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가 있는 층을 말한다. 이하 같다) 외의 층에서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경사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계단(거실로부터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계단을 말한다)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3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주요 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보행거리가 50미터 (층수가 16층이상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4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할 수 있다.

② 건축물의 피난층외의 층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층으로부터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2개소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각 직통계단의 출입구는 서로 10미터 이상 떨어지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2. 판매시설, 숙박시설, 유스호스텔, 의료시설, 아동시설 및 노인시설의 용도에 쓰이는 3층이상의 층으로서 그 층의 당해 용도에 쓰이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인것

3. 공동주택(층당 4세대이하인 경우를 제외한다), 기숙사 및 오피스텔의 용도에 쓰이는 층으로서 그 층의 당해 용도에 쓰이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이상인것

* 건축법 시행규칙

제29조 (계단의 구조) ① 영 제 4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계단 및 계단 참의 너비, 계단의 단 높이 및 단너비의 치수는 별표8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옥외계단 (주계단 또는 피난계단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의 너비는 60센티미터이상, 주택의 계단(공동주택의 공용계단을 제외한다)의 단높이는 23센티미터이하, 단 너비는 15센티미터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돌출계단의 단 너비는 그 좁은 쪽의 끝부분으로부터 30센티미터의 위치에서 측정한다.

③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종교시설, 노유자시설, 의료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판매시설, 위락시설, 관람집회시설, 전시시설, 운수시설, 관광휴게시설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의 주계단,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에 설치하는 난간 및 바닥은 아동의 이용에 안전하고 노약자 및 신체장애인의 이용에 편리한 구조로 하여야 하며, 양측에 벽등이 있어 난간이 없는 경우에는 손잡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난간 및 벽체 등의 손잡이와 바닥마감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1. 손잡이는 최대지름의 3.2센티미터이상 3.8센티미터이하인 원형 또는 타원형의 단면으로 할 것

2. 손잡이는 벽등으로부터 5센티미터이상, 계단으로부터 85센티미터의 위치에 설치할

것
3. 계단이 끝나는 수평부분에서의 손잡이는 30센티미터이상 밖으로 나오도록 설치할 것

내화구조

2층의 바닥면적이 400제곱미터이상일 경우와 3층이상일 경우 건축물의 주요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하여야 한다.

* 건축법 시행령

제56조(건축물의 내화구조) 법 제 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주요구조부는 이를 내화구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단층으로서 연면적이 50제곱미터이하인 부속건축물로서 외벽 및 처마밀면을 방화구조로 한 것과 무대의 바닥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건축물의 2층이 숙박시설, 유스호스텔, 의료시설, 아동시설, 노인시설, 근린생활시설(의료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에 한한다), 다중 주택, 공동주택, 기숙사 및 오피스텔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에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400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

* 건축법 시행규칙

제28조(복합건축물의 피난시설 등)참조

소방시설강화

보육사업지침에 의거 보육시설에는 소방시설을 강화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 보육사업지침상 소방시설

0 소방기구 설치

- 바닥면적 200제곱미터마다 소화기 1개 이상씩 설치
- 보일러실, 주방으로서 바닥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에 자동화산 소화기 2개 설치
- 액화석유가스 20kg이상 사용장소에는 분말소화기 1개이상 설치

0 옥내 소화전 설치

- 연면적 2,100제곱미터이상에는 층마다 1개이상 설치
- 지하층 및 4층이하의 층으로서 바닥면적 450제곱미터 이상은 층마다 1개이상 설치

0 자동화재 탐지설비 설치

- 연면적 600제곱미터 이상에는 층마다 1개 회로를 설치하되, 500제곱미터마다 1개 회로 증설

- 지하층 및 3층이상 층으로서 바닥면적 300제곱미터이상에는 전층에 설치

0 비상경보설비 설치

- 수용인원 300인이상에는 방송설비 및 비상벨 설치

0 피난기구의 설치

- 수용인원 30명 이상으로서 2층이상 층에서는 구조대 또는 피난 사다리, 미끄럼대 설치

0 피난구 유도 등의 설치

- 비상구나 출입구 상단에 소형 피난구 유도 등 설치

0 위험물 (석유, 경유)을 500리터 이상 저장 취급시는 소방서장의 허가를 받고 소방기구 1개이상 설치

0 수용인원 30명 이상 시설은 방화관리자 선임 또는 소방계획 작성 매월 소방훈련 실시

0 거실의 벽, 천장의 마감은 불연재료로 설치

0 바닥면적 1,000제곱미터마다 용도별로 방화구획 설치

0 인근 소방서와 비상연락망 구성 및 1일 점검제 철저 이행 (취사용 가스, 유류등의 안전상태)

참고로 유치원 시설 및 환경기준 (92.10.1개정)을 살펴보자.

교육환경의 기준을 보면 정화구역 안에서의 일정시설 및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학교보건법 제 6조 참조) 즉 설립인가시를 기준으로 위의 저해시설 및 행위가 있더라도 안됨. (절대정화구역 50제곱미터이내, 상대정화구역 200제곱미터이내)

별첨자료 2. > 용도변경에 관련된 공문서

안전직할시 서구

문서번호 : 가정 66251-65

시행일자: 1993.1.20 (1년)

수신: ----- 어린이집

제목: 적합한 보육시설 촉구

내용:

'91.1.14일 공포된 영유아보육법 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보육시설로 운영중인 귀 시설에 대하여 '94.1.13까지 건축법 시행령 제1항 제13호에 의한 노유자 시설로 용도를 변경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건축법에 의한 용도를 갖추지 않았을 경우 인가가 취소되오니 기일내 적합한 시설을 갖추시길 바랍니다.

보건사회부

문서번호: 아동 650207-1261

시행일자: '93.6.19

수신: 인천시 민간보육시설연합회장

제목: 질의에 대한 회신

내용: 귀하가 질의하여 주신 보육시설의 용도문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0 모든 건축물은 건설부에서 관장하고 있는 건축법에 의거 관리되고, 동법 시행령 별표1에 건축물의 용도가 분류되어 있으며,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 14조의 규정에 의거 용도변경허가 (신고)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0 따라서 보육시설을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건축법 및 관련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보육시설은 동법 시행령 별표1에 의거 건축물의 용도가 "노유자 시설"에 해당됩니다.

0 아울러 아파트단지내 공동주택에서의 보육시설 운영은 가정보육시설에 해당되며 단독 및 공동주택에서의 가정보육시설 설치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별도의 용도변경 없이도 가능토록 이미 제도를 개선하여 시행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별첨 자료3> 『별표1』 건축물의 용도분류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 13호 관련)

1. 단독주택

가. 단독주택 (가정보육시설을 포함한다)

나. 다중주택

다. 공간

2. 공동주택 (가정보육시설을 포함한다)

가. 아파트

나. 연립주택

다. 다세대주택

.(중략)

7. 노유자시설

가. 아동시설: 아동복지시설, 유치원, 새마을 유아원 기타 이와 유사한 것

나. 노인시설: 노인복지시설, 경로당 기타 이와 유사한 것

다. 다른 용도로 분류되지 아니한 사회복지시설

특별 기고

농촌 탁아소의 현황과 문제점

엄 영 애 (부안지역 농촌탁아사업위원회 총무)

1. 민간 농촌 탁아운동의 시작과 전개과정

2. 농촌 상설 탁아운동의 문제점과 보완대책

1> 농촌탁아소 운영에 있어서의 문제점

1) 재정문제

농업과 농촌사회의 경제적 여건을 볼 때 탁아사업의 재정은 정부 지원에 큰 비중을 두지 않을 수 없다.

① 정부지원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 9조에 명시된 시설, 종사자 기준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장에게 조정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시행규칙 제 7조를 들어 지원을 거부하고 있다.

(별첨 참조. 부안지역 농촌탁아사업 지원 요청에 대한 93.3.26일자 부안군수의 회신)

② 모금활동: 지역주민 및 지역운동단체들과 연대하여 모금활동을 해야 한다.

2) 시설문제: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인가를 받아야 하는데 시설기준 (아동 1명당 1.3평)에 맞는 건물이 마을에는 전혀 없으며 면 소재지에서도 거의 찾을 수 없는 현실이

다. 방법은 마을회관이나 마을마다 버려져 있는 빈집을 수리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개축 비용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받아야 한다.

3) 종사자 문제:

보육교사 양성교육 수료자들이 늘어나고 있으나 농촌지역에 사는 교사들이 없어서 종사자 구하기가 힘들다.

방법은 그 지역, 또는 인근 마을의 비농민이나 소농의 젊은 주부중에서 원하는 사람이 있을 때 교육비 등을 지원하여 양성교육을 받도록 하는 준비를 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고에서 교육비를 지원해야 한다.

4) 수탁아동확보문제:

농촌에 어린이가 없다고 하나 마을마다 유아들이 있으며 이들은 그대로 방치되어 있어 안전사고가 자주 일어나며 부모가 밖에서 일하는 시간이 길어서 말을 제대로 배우지 못하는 아이들을 자주 본다.

부안군의 통계자료를 보면 1991년 현재 4,519명의 농촌유아(면단위 이하 거주)가 있으며 자연부락이 433개 이므로 한 마을에 10.4명의 유아가 있다.

농촌지역의 바람직한 운영규모는 20-30명이므로 인근 부락의 유아들까지 수탁해야 하는데 인근 부락의 거리가 멀 경우에는 수송차량이 있어야 한다.

5) 운영기간 문제:

(보육시설이) 1년에 300일 이상 운영해야 한다는 규정은 농촌현실에 맞지 않으며 어린이의 교육과 농촌 가정의 가족관계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여름과 겨울 농한기에 넉넉한 방학기간을 갖는 것이 좋다. (별첨참조)

6) 탁아소 운영비 문제

전북 부안군 변산면 마포리의 '마포어린이집' (92년 9월에 시작, 현재 수탁아동 25명이며 수송차량운행) 과 전북 부안군 계화면 의목리 '돈지 어린이집' (93년 5월에 시작, 현재 수탁아동 14명, 차량없음)을 상설, 종일 탁아반으로 운영한 경험을 볼 때 상설 종일 탁아소를 할 경우 현재의 운영비를 보육료에서 충당하기에는 어렵다.

즉 농촌에서 보육료에 대한 전적인 부모부담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아동지원 명목으로 농촌탁아소를 이용하는 전 아동에게 실시되어야 한다.

2> 농촌탁아사업의 과제

1) 주민의 할 일

① 주민조직: 마을에서 탁아소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모들이 지역탁아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탁아소의 필요성을 주민에게 홍보한다.

② 시설: 빈집, 또는 마을회관의 사용승낙서를 받는다.

③ 종사자: 보육교사를 초빙하거나 마을 주민중에서 젊은 여성에게 교육비를 지원하여 양성교육과정을 수료하게 한다.

④ 모금활동: 면 또는 군 소재지에서 일일차집, 물품판매 등을 통하여 모금활동을 한다.

⑤ 정부지원요청: 지역탁아대책위원회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인가 신청 및 재정지원 요청서를 제출한다.

2) 정부의 할 일

① 법령, 규정의 정비: 현행 법령, 규정 등을 농촌탁아사업 현실에 맞게 개정한다.

- 시행규칙 제 9조를 농촌지역을 위해 완화된 규정으로 개정
- 정부지원 기본 원칙에서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만원 미만의 제한을 농촌 지역에서는 전 아동에게 실시할 것
- 300일 이상 운영해야 한다는 규정을 농촌에서는 200일 이상으로 개정

② 농촌지역 보육교사 양성: 농촌에 거주하는 사람이 양성교육을 받기 쉽도록 교육장소, 교육기간을 조정하여 배치하고 교육비를 국고 또는 지방비에서 대폭 지원해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능동적으로 탁아사업을 지원하도록 촉구하고 홍보해야 한다.

④ 농촌에서 주민들이 자발적이고 조직적인 운동으로 탁아소를 설치하고자 할 때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

** 이 글은 지난 8월 25일에 있었던 농촌탁아소 관련자 간담회에서 발표한 내용으로 여기에서 농촌탁아소라 함은 '면 소재지 이하의 농촌지역에 위치한 상설 탁아소'를 말한다.

별첨자료> 부안군의 지원과 관련한 공문

문서번호: 가정 65210-233

시행일자: 1993. 3. 26

수신: 부안지역 농촌탁아사업위원회장

제목: 부안지역 농촌탁아사업 지원요청에 대한 회신

93.3.23 부안지역 농촌탁아사업위원회로부터 부안지역 농촌탁아사업 지원요청 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1. 보육사업(탁아사업)은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 7조의 시설기준에 의하여 보육시설을 갖추고 동법 제 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시장, 군수의 인가 또는 신고를 득한 후 운영하도록 되어 있으나

2. 귀 위원회에서 요청한 건에 대하여 심의결과

가. 년 300일 이상 운영하는 시설이 아니고

나.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기준에 미달되어 예산 지원이 불가능한 실정으로 회신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활동종결

지탁연 교사 여름 수련회 열려

본 회는 '1993년 지탁연 교사 여름 수련회'를 8월 2일부터 8월 4일까지 2박 3일간에 걸쳐 송신대 사회봉사관에서 열었다.
매년 여름, 거울호 나뉘어 실시되는 수련회 중 이번 수련회는 본 회 회원 탁아소 교사 130여명이 참석하였는데 두가지 목표를 가지고 진행되었다.

그동안 사회, 정치적 변화에 따라 어렵게 활동하고 있는 교사들에게 동지애를 느낄 수 있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활동의 의지를 높게 하는 것과 또 하나는 그동안 지역에서 적으로 활동을 전개해 왔던 다른 민간 탁아소 연대 사업에 대한 견해와 전 교사간의 공유시간을 갖는 것이었다.



▲ "함께 있는 시간동안 서로에게 힘을 받고 돌아가자"
개회식 때 최현숙 회장의 인사모습

▶ 김연명(사진 좌)강사의 『사회복지5개년계획에 대한 평가 및 활동 전망』에 대한 강연이 조용각 동부지역대표의 사회로 이어지고. ->

『민간탁아소 연대의 현황 및 전망에 대하여』발제와 열띤 토론으로 수련회 첫날은 저물어갔다.



◀ 등배 날,
유아체조
몇 노래 배우기
시간.
알산지역
아동교육본려
선생님들의
날것한 모습

▶ '그런지도,
문제해동지도,
농악감알기'
등의 주제로
나뉘어 진행된
본발활동 중,
여실히 그것을
그리고 있는
모습에서
아이들의
표정이
물어있다.
언천지역
선생님들.





◀ 모두가 기다리던(?) 체육대회는
드래벌로 뭉어져 호호, 짹짹 신난다.
26세, 30세가 한조가 되어 장거를
보여줬던 2조의 모습.
역시 젊음은 좋은 거- 배구, 사각피구
등에서 열심히 땀
26세조가 총합우승을 차지하였다.
경기에 앞서 잠깐 기념촬영!

▶ 머리 흔들며 중 흥다우프
얼마나 잘들리나.
동리는 사람은
신기한데
구경하는 이들의 표정은
장난스럽다.



워낙 재미있게 체육대회를 했는지, 구경하던 소문동강 주변 학생들,
어느 학교 학생들이 남의 학교까지 원경에서 참 재미있게도 노네.
학생이냐? 애업마들이 수두룩한데

▶ 누가 빨리 길게 늘어뜨리려고
그랬지. 누가 웃통까지 벗으려고
그랬어?
지덕연의 유일한 남성계서 속한
30세조는 조원이 없어서
엉덩이에 바깥 소리나게
뛰어나냈다.



◀ 아이고 나 죽네 !!
누운 김밥말이를 하자고
한 모모양은
웃으면서 사진을 찍고
있었지름.

조원들은 얼드려 있고 한명이 웃 한동이 머리에 이고 그 뒤를 지나가는 코너에서
엎어지고, 머끄러지는 등 문기러 시원한(?) 령경이 속속
주변의 실태도, 적사도 진행을 포기하고 그저 웃기만 하더라.



▲ 열심히 뛰고 너너 배고퍼-
'우리네 방앗간'에서 급송해온
맛있는 떡을 보자 허겁지겁..

▶ 마지막 라점은 피너맛싸기.
고생스껌지만 이 순간을 남기기
위해서는 할 수 없지.
가벼운 사람이 흥나가!



▲ 아 공세,
일어지고 신발 벗겨져도 달려가는 날쌔돌이 선생님들이 누구나,
꼭짜해도 좋다. 뽀빠지의 투지로 전진, 전진!

▼ 뽀빠가 제일 재미있어!, 모두가 엉덩이를 흔들고
전체 율동을 하며 즐거워하는 모습들



▽ 헤어질을 아쉬워하며 보내는 마지막 밤의 하이라이트는 뽀니뽀니 해도 지역발표 시간. 오기전에 얼마나 연습을 했을꼬.
듣자하니 수련회 준비를 위한 지역대표자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값을 툭툭히 했다나. 이날 지역발표는 인천극을 준비한 동부지역과 먼갓탁아소의 헌신을 존극으로 꾸민 인천지역이 가장 많은 박수 갈채를 받았다.
'멍멍이 기사'를 열심히 부르는 중부지역 선생님들.



▷ 마지막 날.
'동일을 위하여' 주제로 강연을 하시는 이창복 선생님의 모습.



△ 이제 헤어질 시간.

전국 각지에서 모인 지탁연 가족들의 모습속에 수련회를 모두 끝낸 추의 기분좋은 피로한 일으로 지역으로 돌아가서 열심히 활동할 것을 다짐하는 걸의가 보인다.

「엄마들에게 인찰 권리, 아이들에게 보호, 교육받을 권리들!」
70년대 후반부터 생기기 시작한 '비영리 먼갓탁아소'들이 모여 만든 본 힘은 방치된 아동의 보호를 위한 사업에서 우리나라 탁아사업 전반에 걸쳐 활발한 활동을 해왔다.
탁아문제를 어촌화하여 1990년 탁아법을 입법화하는데 성공하였으며 탁아제도탁 정책을 마련하고 개선하는 활동을 주안하게 벌어왔다. 특히 탁아사업에 대한 국가책임을 천명하고 아동과 탁아소에 대한 재정지원을 확보하는 활동과 복지사업으로 펼쳐가기 위한 먼갓탁아소의 역할과 방향을 제시하는 한편 여건 마련을 위한 활동을 중심으로 벌이고 있다.
그동안 우리가 이뤄낸 많은 활동과 성려는 많지 않은 수의 지탁연 가족들의 헌신과 연합회를 중심으로 뚝뚝 뭉쳐 탁아문제를 해결하려는 열정과 의지의 결과이기에 더욱 소중하다.
한사람 한사람이 모여 공동 운영하는 탁아소.
탁아소들이 모여 지역연합회를 이루고 연합회를 이루고..
개뿔이 모여 모든 더러움과 모순을 쓸어버리는 바다가 되듯 집단에서 개인이 살고 개인의 발전에 집단이 사는 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 헤어지자 마자 보고싶은 지탁연 가족 여러분!

겨울 수련회에서 다시 얼굴 뵙지요!

* 알림: 여름 수련회 사진은 지역대표께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글머당

너희에게

장정숙(부산 무려아가동산 어린이집)

그래

너희는 우리살의 버팀목이야.

아들놈땀에 산다고
술 취해 허느적이던 한 아빠를 기억합니다.
우리 손자놈 잘 봐주어 고맙다고
파출부 나가 번 돈 만원
허리굽혀 내 손에 쥐어주던 한 할머니를 기억합니다.
허깨물고 꼬꾸라져 죽을래도
너희 때문에 살았노라고 눈물 찍어내던 우리 엄마도 기억합니다.

세살박이 녀석이 엎어달라 청얼거리자
'글카른 선생님 허리 아야해'
제 등 내밀던 네살박이 눈 맑은 우리 아이.
'선생님도 쥐' 엉엉 장난 눈물에
제 입 속꺼 반잘라 내미는
우리아이들의 그 예쁨.

그래,

너희는 우리의 꿈이야.

이 팍팍하고 견디기 모진 세상살이
하루에 열 번쯤 절망하고
하루에 열 번쯤은 대충 살아버리고 싶을 때
"선생님! 나무에서 잠자리가 울어요"
뻥뻥거리는 도시의 가로수에서
매미의 울음소리를 듣는 너희.

너희는 사랑스럽지.
옷에 똥 오줌을 싸버려도
꼬집고 깨물고 침을 뱉뱌 뱉어도
'야 빵구야' 너희가 아는 유일한 옥지거리로 성을 내도
너희는 이 세상에 살아있는 천사지.

엄마는, 아빠는, 그리고 우리는
너희로 하여금 삶을 새로 살고,
너희로 하여금 꿈을 다시 꾸고
너희로 하여금 사랑을 나눈다.

무럭무럭 자라렴
이땅의 당당한 주인으로!!
새날, 새조국의 힘찬 일꾼으로!!

바로잡음: 지난 7월호에 실은 시 '빛이다 어보아' 본문 중 셋째 줄 '판은 신혼'을 '판은 신혼'으로, 여덟째 줄 '황금히 기운 스타킹 포장 관해와'를 '황금히 빛기운 스타킹 포장 관해와'로 고칩니다. 또한 이 시는 '큰 머'가 아닌 '글 머(인천 노동자 문학회 창작집)'에 실린 것임을 밝힙니다.
원고대로 실지 못해 피해를 드린 지은이와 독자여러분께 양해말씀드립니다.

탁아소별곡

모두가 옷을 수 밖에 없는 진달래 이야기

임남희 (안산 진달래 동산 어린이집)

오랜만에 좋은 날씨라 주변의 새마을 유아원에 바깥놀이를 갔었다.
신나게 아이들은 뛰어놀고 있었다.
어느덧 돌아갈 시간, 다들 돌아갈 준비를 하는데 "베트맨 신드롬"에 걸린 주환이만 정글짐에서 내려오질 못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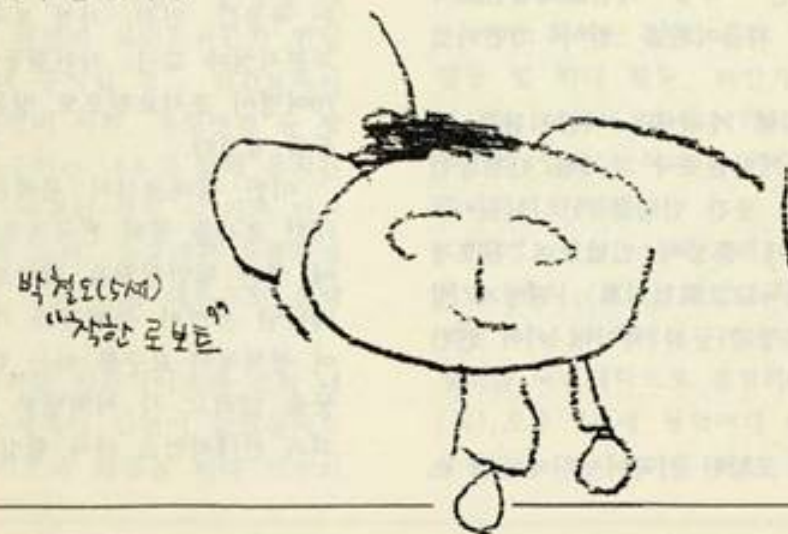
- 주환아, 내려와, 그냥 뛰어내려.
 - 선생님, 무서워요. 떨어지면 다치잖아요.
 - 그래, 그럼 선생님이 잡아줄게. 뛰어내려.
- 잡은 손이 벌벌 떨리고, 다리도 떨린다. 무서운 거다.
하지만 뛰어내리며,
- 베트맨!!
- ??

엄마들의 요청이 있어 짬짬이 시험지(일일공부)를 한다.
글자쓰기를 하다가 선생님이
-이건 '도라지' 할 때 도야, 도로 시작되는게 또 뭐있지?
이때 대현이가,
- 선생님, 나 알아요.
'둘리'의 마이콜이 기타치는 흥내를 내면서 큰 소리로,
- 도, 레, 씨, 팔 ~ (=도레미파)
함께 앉아 있던 선생님의 그 복잡한 표정이란..
그 후는 여러분의 상상에 맡겨요.

세살짜리들은 자주 비지에 쉬를 한다.
여벌 옷이 있을 때는 문제가 없지만 그렇지 않을 때 어떻게 할까? 선생님의 대응책,
- 지홍아, 벗기도 한두번이지, 안되겠다. 이거라도 입자.
하면서 어른여자 팬티를 입힌다.
- 어, 크네. 자, 이거 매자.
완성된 패션은 팬티에 뽕뽕.
오늘은 또 건이가 슈퍼엘 갔다오다 길거리에서 쉬해서 선생님을 당황시키더니 얼마 안있어 똥큰 반바지 사이로 똥을 한덩어리 떨어뜨린다.
옷입은 채 바깥으로 내보내는 일은 일부러 하려고 해도 힘들꺼다.
씻기고 할수없이 그 방법을 썼는데 하도 엉덩이가 퐁퐁해 맞는 것이 아닌가!
건이는 오늘 '날아라 장산꽃'의 글씨가 써있는 옷을 입었다.
한 선생님이,
-여자 뽕스입고 날아라 장산꽃매
하니, 건이가 좋단다.

안산지역의 선생님들이 모이는 모든 회의나 모임때마다 빠질 수 없는 것이 바로 아이들 이야기다. 안산지역위만 그런지 몰라도 교사들이 요즘 매우 힘들어하는데 실컷 웃고 나면 다시 힘이 생기는 것은 천직이기 때문일까?

물엿고, 오줌싸고, 심지어는 오줌통까지 엿고, 울고, 때리고..
도망가고 싶을 때가 한두번이 아니다.
하지만 하루에도 여러번 코메디아닌 코메디를 하는 우리 아이들.
그들이 있는 한 탁아교사는 힘든 만큼의 행복도 느낀다.
우리말고 또 누가 이 기쁨을 누릴 수 있을까? 하는 자부심도 함께..
좁은 공간, 부족한 장난감에도 불구하고 늘 창조적인 놀이를 개발하는 친구들이 있는 한 우리는 뭐든지 할 것이다.



소식과 소식

연합회
소식

- 여성평화의 집으로 이사하고
개관식 가져

본회는 지난 7월 30일(토)에 현재 장소인 「여성평화의 집」으로 이사를 하고 9월 17일(금)에 공동 개관식을 하였다.

1990년 이우정, 김윤옥, 이미경의 발의로 「사회변혁을 위한 여성단체 모임」을 만들어(준비위원장 이우정) 「여성평화의 집」 건립을 결의한 지 만 3년만에 그 결실을 본 「여성평화의 집」은 공간의 불안정성을 타개하고 한 공간에서 서로 연계된 여성운동을 펼치는데 뜻을 모아 용자, 전세금, 모금등을 통해 자금을 모으는 한편 「독일 개신교개발원조국(EZE)」에서 자금지원을 받아 마련하였다.

9월 17일에 개관식은 자금지원을 한 「독일개신교개발원조국」과 8월 한달동안 건물 수리와 공간 단장을 한 「일꾼 두레」에 감사패 증정이 있었으며 권호경 총무(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권영자 장관(정부 제2장관)등의 축사에 이어 헌관식을 하였다.

본 회를 포함한 한국여성단체연합 소

속 5개단체와 4개 기독교여성단체가 있는 「여성평화의 집」은 중구 장충동 1가에 연건평 2백 8평의 지하 1층, 지상 4층 건물이다.

- '92년 여름수련회 열려

본 회가 매년 주최하는 여름수련회가 회원 1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8월 2일부터 4일까지 송실대사회봉사관에서 열렸다. 아동교육활동의 전문화와 회원간의 단합, 조직활동에 대한 이해를 중심으로 하여 진행된 이번 수련회를 통해 이후 활동의 과제를 명확히 밝혀내는 한편 각 지역의 원활한 활동의 의지를 되새기는 계기가 되었다.

- '전국 6대도시 보육시설 실태조사' 벌여

본회는 우리나라의 현 보육시설의 현황과 운영상의 어려움을 알아보는 「전국 6대도시 보육시설 실태조사」를 7월말부터 한달간 벌였다.

서울을 비롯 6대도시에 분포되어 있는 국공립, 민간, 가정 보육시설에 대한 표본시설에 교사, 자원활동가 등 연인원 70여명이 조사요원으로 방문하여 조사활동을 벌였다.

이번 실태조사의 목적은 이 시설에 대한 조사를 통해 전국적으로 이 시설들에 대한 일반상황을 알아보고 현황에서 나타난 운영의 문제점과 대안을 모색하여 정책적인 요구를 하는 한편 본 회 활동을 알리고 각 지역별로 민간탁아소들과의 연대작업을 더욱 활발히 하는 계기

를 마련하는 것 등 이다.

이번 조사시설수는 전국 28개소에 설치된 직장보육시설에 대한 우편을 통한 전수조사에서 건인 7개소를 제외한 국공립 30개소, 민간 99개소, 가정 100개소 등 229개소로 최종 집계되었다. 본회는 조사의 결과를 보고책자로 제작하여 관련 시설에 배포할 예정이다.

- 보사부 비공식 간담회에 참여

본회는 8월 24일(화) 보건사회부 아동복지과가 주최한 비공식 간담회에 참석하였다. 보사부 회의실에서 열린 이날 간담회는 정부의 탁아정책의지를 구현할 획기적인 양적확대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민간탁아소의 실정을 알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 줄 것을 본 회에 요청하여 성사된 것이다.

이날 간담회에 보사부에서는 아동복지과 김진수 과장을 비롯 4명과 본 회 최현숙 회장, 정희연 부회장, 서울의 성동구, 구로구, 강서구와 인천, 안산, 부천의 본 회 소속 탁아소 대표와 일반 민간탁아소 대표 등 13명이 참석하였다.

간담회는 민간보육시설의 운영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과 표준보육단가 현실화하는 가운데 유지할 것,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운영비 지원, 용도변경 등 정책 개선을 요구하는 내용과 함께 유치원 종일반 고려, 국공립 설치 시 기존 민간탁아소의 위치 고려, 공공기관 유휴시설 민간탁아소에 제공 등의 내용으로 진행되었다.

이번 간담회는 민간탁아소의 건의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탁아문제 해결을 위해 민간의

목소리를 듣고자 하는 정부의 자세 변화를 실감케 하였으며 그간의 탁아정책과 제도개선을 촉구해 온 본 회의 끊임없는 노력과 이익을 남기기 보다 공공사업으로서 올바른 탁아소 운영을 고민해 온 민간탁아소들이 함께 어우러진 자리였다는데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겠다.

- '농촌탁아소 관계자 간담회' 열려

지난 8월 25일(수), 전북 부안에서 있었던 「농촌탁아소 관계자 간담회」가 열려 「탁아운동의 현황과 탁아정책의 방향」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본 회 회장이 참석하였다.

(관련 기사 지역위원회 소식)

- 「서울 경인지역 자원활동가 대표자회의」 열려

9월 3일(금), 오후 6시부터 서울 중랑대 탁아동아리 「사랑터」에서 「서울경인지역 자원활동가 대표자회의」 정기 회의가 열렸다.

이번 회의는 방학 중의 탁아소 자원활동 및 학내 활동, 하반기 활동 계획 보고와 더불어 10월 17일(일)에 있을 「제6회 일하는 어머니 큰잔치」를 위한 준비회의로 열렸다.

한성, 중앙, 이화, 고려, 홍익, 연세, 국민, 홍익, 건국, 한양대 등 14명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 「어머니 큰잔치」의 장소를 국민대학으로 결정하고 9월 23일(목), 오후 7시에 동덕여대 아동학과 사무실에서 행사준비를 위한 모임을 갖기

로 하였다.

- 「영유아보육법 개정 청원서」 접수사거

지난 '90년 1월 14일 제정, 공포된 「영유아보육법」의 수혜자 부담원칙을 철폐하여 국가, 사회의 공동부담원칙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본 회의 개정 청원서가 접수되었다.

9월 14일(화), 민주당 '이 해찬 (보사위원)' 의원의 소개로 국회에 접수되었다. 의원소개를 받는 과정에서 이해찬 의원이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지원의 근거 조항 (제 22조 3항) 에서 무조건적인 지원보다 일정한 선별기준이 있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를 '보육위원회에서 심의, 선정된 보육시설'이라는 문구를 삽입하고 보육위원회의 기능조항에서 지원시설에 대한 심의, 선정조정권 조항을 삽입하기로 하였다.

본 회의 탁아문제의 해결은 올바른 법과 제도를 마련하는데서 부터 출발한다는 인식아래 지난 80년대후반부터 탁아입법활동을 벌여왔다.

당시 3당합당을 통해 날치기로 통과된 현 영유아보육법이 제정된 후 곧바로 국회 항의시위, 서명작업, 여론 홍보 활동 등을 통해 꾸준히 개정활동을 해오면서 지난 4월에 「영유아보육법 개정」을 위한 공청회」를 연 바 있다.

각 지역별로 꾸준히 벌여온 개정활동의 성과로 접수된 이번 법 개정 청원서는 11월에 있을 각종 법률안 심의기간에 처리될 예정이다.

- 「보육사업 발전을 위한 대 토론회」 열릴 예정

본 회의 오는 9월 24일(금) 오후 2시부터 서울 YMCA대강당에서 「보육사업 발전을 위한 대토론회」를 연다. 이번 토론회는 주제발표 '영유아보육시설의 현황과 보육정책의 대안(허선, 중앙대 강사, 사회복지학)'에 이어 보사부, 학계, 민간보육시설 원장들의 토론으로 이어질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는 본 회의 올해 활동계획을 잡으면서 민간탁아소가 우리나라 탁아현실속에서 차지하는 역할과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자리를 마련하는 취지속에서 결정되어 6개월간의 준비 과정끝에 마련된 것이다. 본 회의 이번 토론회에서 우리나라의 탁아현실과 문제점을 올바르게 조명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한편 정책적으로 수렴해야 할 과제들을 밝힐 예정이다.

- 「제6회 일하는 어머니큰잔치」 열릴 예정

본 회의 오는 10월 17일(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 서울 국민대학교 교정에서 「제6회 일하는 어머니큰잔치」를 연다.

올해로 여섯번째 맞이하는 '어머니큰잔치'는 탁아소 자모, 자부, 교사 등이 함께 하는 가운데 탁아현실을 알려내고 탁아소를 중심으로 한 공동체 의식을 강화하는 한편, 각 지역의 활성화를 위해 매년 벌여왔다.

올해의 행사프로그램을 보면 전통혼례와 노래자랑, 가장행렬, 대동놀이 등

의 자모, 자부 참여 프로그램과 인형극, 비디오 관람, 실외 게임 등의 아이들 프로그램이 있을 예정이다.

지역위원회 소식

- 「농촌탁아소 관계자 간담회」

지난 8월 25일(수) 늦은 3시, 전북 부안 계화도에 있는 '돈지 어린이집'에서 농촌탁아소의 올바른 실현을 고민하는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전남 벌교, 충남 홍성, 충북 제천, 전북 진안, 경북 성주, 전북 부안 등에 있는 농촌탁아소의 관계자들을 초청하였다.

이 날은 농촌탁아소의 모태라고 할 수 있는 부안지역의 도청, 모항어린이집에 이어 마포어린이집, (92.7월 개원) 돈지어린이집 (93.5개월)에서 활동하는 교사(4) 운영위원(2) 자모(11)외에 경북 성주에서 이번 9월초에 개원 예정인 대가어린이집 교사(1), 운영위원(1)의 부안 지역 여성농민회원 및 농민회 회원 등이 참석하였다.

'농촌지역 탁아문제' 주제로 진행된 이날의 순서는 '바람직한 자녀교육(박찬숙, 순창군 여성농민회 회원)' '아동그림지도(박성자, 전국여성농민회 조직강화 특위장)'에 대한 강연과 '탁아운동의 현황과 탁아정책의 방향 (최현숙, 지탁연회장)' '농촌 탁아운동의 현황과 과제

(엄영애, 부안지역 농촌지역탁아사업위원회 총무)' 발제로 이 내용을 가지고 심도있게 검토하고 논의하였다.

원래 오후 10시반에 끝나기로 한 일정이었으나 열띤 논의와 대책마련을 위한 고민을 하며 밤을 꼬박 새우다시피 하였다.

농촌탁아소가 농촌에 사는 부모와 아동들에게 실질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 우리들의 할일을 확인하며 다지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는 모임이었다.

농촌탁아소 확충과 운영을 촉진하기 위해 '농촌탁아소 연합모임(가칭)'을 구성하기로 하고 12월 중 창립총회를 추진하기로 했다.

- * 준비위원장
- 엄영애 (전북 부안 돈지어린이집)
- * 실무자
- 이미자 (전북 부안 마포어린이집)
- * 준비위원회 1차모임 예정
- 1993년 11월
- * 참석범위
- 전국 각집 대표

(전북 부안에서)

- * 지난 8, 9월은 각 지역별로 수련회, 방학, 실태조사, 하반기 사업계획 등의 활동을 하였던 바 지역위원회 보고내용을 실지 않습니다. 양해바랍니다.

모임과 모임

< 지역대표자회의 >

- 지방지역대표자회의

(7.20. 전주, 마산 불참)

기독교사회발전추진위원회 수련회 참석건과 평화의 집 입주, 사대위 주최 "정부예산 구조와 사회복지예산 확보방안"에 대한 교육 참석건과 '민탁주체연석회의' 내용을 보고하고 지역활동보고를 하였다.

주요논의 내용은 수련회 프로그램에 대한 점검과 지역에서 사전에 준비되어야 할 내용으로 민탁에 대한 교사들의 의견을 사전에 수렴, 논의하는 것과 지역발표에 대한 준비에 대해 논의.

상반기 지역평가를 활동평가, 논의력 및 지도력 확보, 이후 활동방향으로 나누어 실시했다.

- 서울경인지역대표자회의

(7/22. 중부 불참)

자원활동가 합숙, 직장탁아소활성화를 위한 사례발표회 참석건, 보사부 아동복지과장 면담에 대하여 중앙활동보고를 하였다.

수련회 최종점검과 민탁연대발제 초안에 대한 검토 및 논의를 하고 이를 기반으로 지역에서 민탁연대에 대한 사전

논의를 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리고 지대의 상반기 평가속에서 좀 더 논의력을 강화하고 지역에서의 지도력 확보가 절실하다는 제기가 있었으며 지역활동을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지역구조의 효율적 편성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 서울경인 지역대표자회의

(8/19. 구로, 부천 불참)

보사부 비공식 간담회 건과 실태조사 중간보고를 하고 간략한 지역활동보고를 했다.

수련회에 대한 평가서 점검과 보완작업을 했으며 중앙의 하반기 중점 활동 중 9월 토론회와 10월의 어머니큰잔치, 수익사업에 대한 일정검토 및 내용에 대한 논의가 주로 이루어졌다.

수익사업에 대해서 일일주점이나 공연보다는 추석물품판매가 지역에서 판매하기가 수월하다는 의견이었다.

- 지방지역대표자회의

(8/31. 군산, 마산 불참)

보사부 비공식간담회 참석과 농촌탁아간담회 참석, 실태조사 중간보고, 평화의 집 입주에 대해 중앙에서 보고를 했다.

각 지역활동에 대한 보고 및 논의 속에서 지방의 특수성속에서 각기 어려움을 내놓고 의견을 나누었다.

안건으로는 수련회 총평가와 연합회의 하반기 사업계획에 대한 논의가 되었는데 토론회에서 각 지역별로 꼭 참석할 것과 다른 보육시설에 홍보하는 것 그리고 어머니큰잔치를 지방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9월 17일에 있을 여성평화의 집 현판식 및

개소식에 지방지역대표자들이 참석하고 지방지대의회를 하기로 결정하였다.

- 서울경인지역대표자회의

(9/2. 성남, 구로 불참)

중앙활동보고와 서울시 보육교사 실기보수교육 실시건에 대해 보고하였다.

서울시 보육교사 보수교육이 현 보육시설교사들이 수강하기에는 시간상 어려움이 있으므로 방학을 이용하거나 오후에 실시하는 것을 서울시에 건의하기로 결정하였다.

안건에서 토론회 형식을 실태조사 결과보고와 정책대안을 1부에 함께 논의하는 것과 실태조사 결과보고와 정책 대안을 1,2부로 나누면서 1부에서 민탁원장들의 현장의 목소리를 담는 것에 대한 토론회가 되었는데 각 형식에 따른 장, 단점이 제기되면서 결정을 집행부로 위임하였다.

어머니큰잔치는 성격을 가족문화제로 합의하고 주제와 프로그램 진행에 대해서는 의견만 제시하고 준비위원회를 구성하여 논의하고 그것을 가지고 재논의하기로 결정하였다. 수익사업은 더덕, 술, 젓갈이 제안되었는데 이윤이 적다는 문제가 있어 다시 견본을 보고 결정해서 지역에 연락하기로 하였다.

9월 17일 개소식과 10월 9일 아동교육 실기강습에 대해서 광고하였다.

< 아동교육분과 >

- 영아 탁아모임

9월 4일(토) 오후 3시에 본회 사무실에서 영아 탁아모임이 있었다. 구로지역

새터 어린이집, 인천 새싹어린이집, 아동교육분과장, 교육간사가 참가하였다. 이번 안건은 영아의 건강과 질병에 관하여, 앞으로의 영아탁아 모임 계획수립이었다.

진행은 건강에 관한 자료 발제와 그와 관련한 토론이 있었다. 건강이란 단지 질병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신체와 정신, 사회적으로 평온하고 안정된 상태를 말하며, 탁아소에서 영아의 건강과 관련한 내용으로 영아의 건강상태를 파악하고 있을 것, 시설과 개인용품의 위생관리를 철저히 할 것, 영아의 신체, 청결관리와 정신건강에 특별히 유의할 것, 건강지도 등의 내용을 논의했다.

질병부분은 발제자의 불참으로 이월되었다.

앞으로의 영아탁아 모임 방향에 관한 논의는 영아탁아소의 적극적인 참여가 어려운 상황이라는 하나, 참가가 가능한 탁아소부터 모여 모임을 갖자고 논의되었다. 하반기에 영아 관련 소책자를 발간하는 것을 계획하기로 했다. 다음모임은 11월 6일 오후 3시 본회의실에서 있을 예정이다. 안건은 1)질병과 예방, 안전과 응급처치 2)영아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 3)영아 교구교재 제작과 교류 등이다.

영아 탁아소의 적극적인 참가를 당부한다. 영아탁아는 유아탁아와는 달리 정리된 내용이 부족하기에 경험의 교류와 정리가 시급한 실정이다. 격월로 하는 모임이므로 미리 계획하여 모임이 이루어졌으면 한다.

- 서울경인지역 아동분과

8월 31일, 서울 경인지역 아동분과는

상반기 평가와 하반기 계획을 수립하였다. 각 지역 아동분과는 자기 실정에 맞게 지역사업을 수립하고, 중앙사업은 각 지역실정을 고려하고 지역강화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을 계획하기로 했다.

하반기 아동분과 사업의 기초는 이제껏 논의되고 정리된 아동관, 교육철학에 기초하여 실제 교육프로그램을 연구하고 강화하는 것과 이를 토대로 한 민간 탁아소와의 교류활성화 방도를 내오는 것, 아동교육과 관련한 보육정책에 대한 점검과 대안을 내오는 작업, 교육의 전문화의 방도로 전문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 외부단체(어린이 도서관연구회, 영상모임)와의 교류이다.

사업은 10월에 전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실기 강습이 있을 예정이고 11월에 아동관 토론회(공동체 교육) 개최, 수련회 준비, 평가 작업을 예정하고 있고, 일상사업으로 재롱잔치 행사에 대한 검토와 교육활동교류 강화를 예정하고 있다.

- 지방아동분과

9월 1일 오후 1시, 대전 민주청년회 사무실에서 지방아동분과 회의가 있었다. 안건으로는 상반기 평가와 하반기 계획 수립이었다. 지방의 경우 각 탁아소 사정이 어렵고, 적은 수의 탁아소가 지역으로 묶여 있어 서울 경인 지역 아동분과와는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계획을 수립해야 함을 합의했다.

지방아동분과는 하반기에는 지방의 경우 민간 탁아소와 아동교육 교류사업이 활발한데 이에 대한 논의와 지원사업을 하는 것, 교구교재 제작을 매 모임마다 각 지역별로 준비하여 실제 교육에 도움되게끔 하기로 하였다. 다음 모임은

9월 22일 대전 민청사무실에서 있을 예정이며 안건은 1)민간탁아소 아동교육 교류사업에 대한 방식과 내용에 관한 논의, 2)교구 교재 제작과 교류하기, 3)전주 / 부산지역 지역 평가와 계획에 관한 보고및 논의 이다.

<영유아보육법 제정특별위원회>

- 서울경인개특위

(7월 14일부터 매주1회)

서울경인개특위는 '9월 토론회' 준비 속에서 '실태조사'를 기획, 진행하였다.

실태조사의 목표와 문항을 정리하는 한편 실태조사의 전 과정의 진행을 전담하였다.

8월회의에서는 실태조사의 결과분석을 위하여 '결과보고서 작성모임'을 별도로 진행하였으며 9월에는 '보육사업발전'을 위한 대토론회'에 대한 준비를 하였다.

- 지방개특위

서울 경인 개특위와 '실태조사'작업을 전담한 지방개특위는 8월 회의를 한번 쉬었다.

9월 9일 정기회의에서는 '실태조사' 결과자료를 검토하고 각 지역 활동에 대한 보고를 하였다.

광주에서도 광주지역 전체에 대한 실태조사와 지역작업을 기획하고 있으며 부산지역은 무허가지역에 있는 미신고탁아소에 대한 대책마련을 위하여 시청작업과 연대활동을 활발히 벌이고 있다.

지방개특위에서는 위 지역의 지역작업에 대한 논의를 하였다.

유아교육세미나를 다녀왔습니다.

1993년 8월 14,15일 이틀에 걸쳐 방송통신대 유아교육학과 주최로 유아교육학과 세미나가 있었다. 상반기 아동분과 활동평가를 하면서 교사들이 교육 실재에 대한 재교육의 방안으로 외부에서 하는 유아교육세미나, 실기 강습회, 교사 워크샵에 적극적으로 참가하는 것이 제안되었다. 이에 구로지역교사 3인, 북부지역교사 2인, 아동교육간사가 방송통신대 세미나에 참가하였다.

교육내용을 살펴보면 14일에는 유아체육, 동작교육의 이론과 실제, 15일에는 교구교재의 제작과 활용, 유아교육 행정에 관한 내용이었다. 유아체육의 경우 유아교육내에서 체육교육에 대한 교육내용 부족에 대한 지적과 체육교육의 의의에 대한 강의와 실재에 대한 슬라이드 관람이 있었다.

동작교육의 이론과 실재는 단순히 교사가 준비한 움직임을 그냥 유아에게 모방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몸을 자연스럽게 움직이도록 도와줌으로써 인간의 움직임에 수반되는 동작의 원리와 일상적인 요소를 배우도록 하는 것이라는 이론적 강의와 실제교육이 있었다.

교구교재 제작과 활용에서는 노래 배우기, 동화자료로 화일 동화 제작활동을 하였다.

참석한 교사들은 실기교육이 유익하였고, 우리도 이런 유아교육에 대한 실제교육을 개최했으면 한다는 바람을 이야기했다. 또한 이런 교육이 탁아 현장에 맞는 교육내용과 실재를 준비한다면 더욱 좋을 것이라는 아쉬움과 앞으로의 바람을 이야기했다.

(오윤정 아동교육간사)

사람들

* 결혼

북부지역위원회 이강희 씨(봉천동애기방)는 오는 9월 26일 (일)에 결혼을 합니다. 축하드립니다.

* 출산

북부지역위원회 김경태 씨(어린이사랑방, 본 회 지도위원)가 9월 5일에, 인천지역위원회 이해정 씨(햇살어린이집)가 9월 11일에 첫딸을 낳았습니다.

지탁연 전가족의 축하를 바랍니다.

* 논문

본 회 정책연구부 부원 두분의 논문이 발표되었습니다.

장미경 씨(강원대학교 사회학과 대학원, 사회정책 전공)는 '한국 탁아정책의 변화요인에 관한 연구'를, 나경선 씨(서울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사회복지정책결정에 사회운동이 미치는 영향의 평가에 관한 연구 - 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의 운동사례를 중심으로'입니다.

위 논문들은 본 회 사무실에 있으니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지역에서 새로이 활동을 시작하신 분, 결혼, 출산 등의 변화를 함께 가는 길에 알려주십시오.

우리들의 목소리

활동의 의지와 희망을 갖게
한 수련회

최은선 (천안 채송화 놀이방)

아이들의 울음소리와 고함소리에 묻혀 시간의 초침소리 같은 아주 미세한 소리들은 세상에 아예 존재조차 하지 않는 것 같았다.

매일 매일을 긴 하루속의 짧은 하루를 보내며 처음 몇 주는 육체적 피로는 다른 때에 비해 배였지만 기꺼이 즐거웠고, 다음 몇 주는 아이들이 적응해 나가는 것이 즐겁고 내 자신도 어느 정도 일에 익숙해져 가는 것 같아 만족했다.

하지만 점점 육체적 피로에 힘겨웠고 나의 무식함으로 인해 그저 배우기식으로 일하고 있는 내 자신의 부족함에 점점 무기력해져 갔다.

1년반의 준비끝에 어렵사리 공간을 마련하여 건물 내부구조를 바꾸는데만도 2개월이 걸렸고, 놀이방 이름 정하는데만도 한달이 걸렸다. 우리 놀이방으로 만들기 위해 일일이 하나하나 오리고, 붙이고, 매달고 하면서 밤을 지낼 때만도 꿈은 하늘에 닿았고 각오 또한 대단했다.

“채송화 놀이방”으로 이름 지을때의 그 설렘과 흥분. 어떻게든지 열기만 하면 뭐든지 될 것 같고 좀 육체적으로 힘들겠지만 준비기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닐 것 같은 열의와 기대를 가지고 시작했다.

그런데 겨우 2개월의 교사활동속에서 내 자신의 가치와 역할에 대해 고민하게 되고, 매번 잘해보겠다는 다짐과는 달리 나태하고 게으른 내 자신과의 싸움에 지쳐 있었다.

이런 힘든 시기에 ‘여름 수련회’는 물에 빠져 허우적일때 혹시나 하는 지푸라기였다.

하지만 2박 3일을 마치고 수련관을 나섰을 때 지푸라기 정도가 아니었음을 알았다. 나에게 새로운 희망과 확고한 신념을 갖도록 해 준 좋은 계기였다.

첫번째 강의였던 ‘민간탁아소 연대활동’ 부분에서는 처음 들었을때 ‘아직 우리 천안과는 거리가 먼 부분이구나’ 하는 생각이 먼저 들어 강의 시간에 깊은 생각없이 그냥 들었는데 토론시간이 되자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할지 난감하기만 했다. ‘에라, 이렇게 된 이상 듣기만 하지 뭐’ 이런 생각으로 조별토론에 임한 나는 내 생각이 잘못 되었음을 이내 알았다.

교육현장에서 느낀 생각과 활동을 토대로 열띤 토론을 벌이는 다른 지역 선생님들의 표정과 대화속에서 우리가 바라는 육아의 사회화는 민간탁아소들의 단합된 연대속에서 이루어 질 수 있고 각 지역의 벌인 민간탁아소들과의 연대활동 상황과 앞으로의 활동 방향을 들으며 우리가 하려고 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를 다시한번 확인하였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천안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를 고민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둘째날의 체육대회 중 미니 올림픽도

체육대회를 함께 하며

김연희 (중부지역 토레 놀이방)

내리쬐는 피악벌, 쏟아지는 비지땀, 달아오르는 살갗, 내지르는 함성 그리고 그대로 뻗음!

해마다 있는 지탁연 교사 여름 수련회.

전국의 지탁연 가족들이 모이는 이 행사의 준비를 위해 지역대표들이 모였다.

한여름의 기운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는 가장 적절한 프로그램이 무엇일까를 고민하다 얻어낸 것이 체육대회였다.

탁아현장에서 지친 몸들로 더운 날 하루종일을 어떻게 격렬한 운동으로 보낼꼬 고민도 많이 되었지만..

흙바닥에서 땀굴고, 부딪히고, 깨지고 그러면서도 마냥 웃을 수 있는 여유가 있고, 자기 토레조만의 유별성을 자랑하려는 선의의 경쟁이 있고, 그러면서도 함께 어우러짐의 자리를 결코 잊지 않는 하나됨의 자세가 줄곧 돋보인 것이 체육대회였다고 생각된다.

처음에 염려했던 것과는 달리 이탈하는 교사도, 경기에 끼어들지 않으려는 교사도 하나 없이 모두가 끝까지 신명나게 뛰는 모습을 보면서 탁아교사들의 활기를 다시금 느낄 수 있었다.

특히 나이 어린 교사에 못지 않게 매 경기에 그 누구보다 열심히 참여한 언니들에게 고마움과 더불어 감동을 받았다. 배구 결승전에서 보여 준 현숙이 언니, 미경이 언니의 진지한 모습을 우리는 잊지 못할 것이다.

참 좋았다.

목감기가 걸려 몸 상태가 좋지 않았지만 그냥 가만히 앉아 있게 내버려 두지 않았다. 날뛰고 소리를 질러대는 바람에 목소리는 팍 쉬어 지역소개 때 내 예쁜 목소리를 들려 주지 못한 것이 못내 아쉽지만 그렇게 좋은 선생님들을 많이 알면서 직접 부딪치고, 함께 땀 흘리고, 웃을 수 있는 좋은 장이었다.

정말 잊을 수 없는 좋은 햇살과 웃음이 있었던 날로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

여러가지 행사속에서 얻은 것도 많지만 특히 인상깊은 것은 다른 지역 선생님들의 모습에서 보여지는 일에 대한 열의와 사랑을 눈으로 확인한 것이다.

아직 어린 나이지만 뜨거운 열기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임하는 선생님들..

가정을 가진 힘든 상황속에서도 나이에 맞지 않게(?) 순수한 밝음을 변함없이 간직했던 선생님들... 아이들 만큼이나 깨끗하고 순수한 선생님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을 그들과 함께 하고 있다는 그것만으로도 힘이 솟았다. 그들과 함께 함에 부끄럽지 않도록 노력하리라.

짧은 기간동안의 수련회였지만 내가 힘들때, 내가 나태하고 게으를때 나를 반성하게 하고 힘이 되어 줄 것이다.

엊그제 같은 일이 벌써 한달이 지나가 버렸다. 그동안 우리 채송화 놀이방도 조금씩 늘어나고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다. 이제 정말 시작이다. 앞으로 더 많은 힘든 일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우리 채송화 놀이방 식구, 14명의 우리 아이들과 3명의 교사, 정말 사랑하는 이들이다. 이들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다.

그리고 이 정도의 체육대회 프로그램에 결코 곪아떨어지지 않는 강인한 체력의 필요성을 우리 모두가 다시금 깨달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다음에는 하루 종 일을 함께 달릴 수 있는, 그야말로 체육 대회만을 위한 날을 잡는 것이다.

함께 수고한 영미, 주영이에게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

실태조사, 설문지 한부..

박정미 (구로 새터어린이집)

지탁연과 새터 실무자 수련회로 방학 일주일일을 보내고 출근한 우리에게 실태 조사라는 막중한 임무가 기다리고 있었다.

월요일부터 새터 전화는 물살을 앞었다. 구로지역에서 조사해야 할 시설 중에서 우리집에서는 6부를 맡게 되었고 나는 몇 개의 놀이방 중에서 다행히 우리와 가까이 지내던 송이 놀이방과 다른 곳을 가게 되었다.

일단 전화를 해야겠지?

처음은 YMCA라는 놀이방이었다. (아마도 이 놀이방 원장은 YMCA 탁아모 교육을 받고 이름을 걸었으리라.)

전화로 10분가까이 이야기한 끝에 결론은 토요일 오후에나 시간이 남거란다. 손에서 진땀이 다 날 지경이다.

다음엔 같이 가기로 한 애용선생님이 전화를 해서 색동 놀이방이라는 곳으로 가게되었다.

"정장도 입고 그래야 된다는데-"
"우린 자체로 품위가 나잖아."
"호호호"
"잘 안해 주면 어떻게 하지?"

이런 이야기를 주고 받으며 다음날 점심을 바쁘게 먹고 색동에 도착했다.

'와, 뭐 이렇게 좋아?'

깨끗하고 안정된 분위기의 시설에 조금씩 주눅드는 자신을 발견하며 썩 내켜하지 않는 원장과 마주 앉았다. 시설의 안정됨에서 느낄 수 있듯 원장은 돈이 문제가 아니란다. 정부의 재정지원이나 문제점, 이런 것에는 별 관심이 없었다.

'지원? 받으면 좋지' 하는 식이었다.

반면 아동교육이나 교사의 처우 개선, 재교육에 중점을 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다른 탁아소와의 교류도 '하면 좋지' 하는 정도고, 그래도 우리에게 악간의 자만심(?)을 가지고 꽤 우호적으로 대해 주었다.

썩 개운치 않은 마음으로 색동을 나오며 우리 아이들도 조금 더 넓은 곳에서 생활하게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안타까움에, '돈이 좋긴 하구나' 하는 생각마저 들었다.

하지만 우리 탁아소, 새터로 서둘러 돌아가 부시시 낮잠에서 깨어 일어나는 우리 아이들을 보며 좀 더 큰 사랑으로 안아줘야지 하고 생각했다.

● 탁아현장에서 활동하면서 느낀 점,
어려운 점을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들의 목소리를 이용해주세요.

책소개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

글쓴이/유홍준.

펴낸곳/창작과 비평사, 값/6천5백원

미술 평론가이며 '한국 문화유산답사회' 대표를 맡고 있는 글쓴이가 직접 답사한 곳을 글로 엮은 책이다.

이 책은 조상이 남기고 간 유물을 재해석하는데 기존의 것을 답습한 게 아니라 그 유물이 있기까지의 유래와 그 유물이 현재를 사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던져주고 있는가 하는 물음과 소중한 우리 문화가 어떤 푸대접을 받고 얼마나 사람들의 무지에 의해 황폐해져가는가에 대한 안타까움, 분노, 작은 희망등이 읽는 사람의 피부까지 전해진다.

그리고 답사에 참여한 사람들의 우리 문화에 대한 감흥을 전해주고 있어 읽는 그 자리에서 마치 답사에 직접 참여하고 있는 착각을 하게 하고 글쓴이의 호락호락하지 않는 성격이 글속에 나타나 흥미를 더해주고 있다.

한마디로 말해 이 책은 글쓴이에 의한 문화유산의 주관적인 내용이 많이 포함되어 있지만 결코 헛된 말이 아닌 그런 책이다. 꼭 읽었으면 하는 책이다.

「일곱가지 여성 콤플렉스」

글쓴이/ 여성을 위한 모임.

펴낸곳/현암사, 값/4천 8백원

이 책을 지은 '여성들을 위한 모임'은 여성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이다. 모임의 첫 과제를 우리나라 여성들이 속으로 깊이 알고 있는 일곱가지 콤플렉스의 뿌리를 찾아 사례를 분석하여 여성 자신을 되돌아 보게 하고 여성 문제 해결의 방향을 제시하자는 것으로 삼아 그 성과의 결실이 한권의 책으로 엮어진 것이다.

일곱가지 여성 콤플렉스를 착한 여자 콤플렉스, 신데렐라 콤플렉스, 성 콤플렉스, 외모 콤플렉스, 지적 콤플렉스, 만달 콤플렉스, 슈퍼우먼 콤플렉스로 잡았다. 구체적인 사례를 모아 충분한 설득과 이해를 바탕으로 한 방법 제시를 통해 많은 여성들에게 힘을 주고 있는 책이다.

「손상된 이동기」

글쓴이/에다 레산 (Eda J. Leshan) 옮긴이/최기영 펴낸곳/서원 값/5천5백원

어른들의 극성에 의해 점점 짧아져가는 아동기를 보내고 있는 현대 아이들의 불행은 글쓴이의 나라인 미국사회의 광적인 영재교육과 더불어 자유롭게 자라야 할 아동기의 훼손에 위기 의식을 느낀 아동교육자의 글이다.

어른들의 기대에 따라 보호해주고 존중해야 할 어린이 세대가 파괴되고 불행한 삶을 일찍부터 살고 있는 아이들을 보호하고자 하는 글쓴이의 걱정은 우리의 걱정이기도 하다. 책속의 많은 사례가 아직은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는게 있다 하더라도 많은 공감을 줄 책이다.

< 행사안내 >

제6회 임하는 어머니 큰잔치

일시: 10월 17일(일) 오전 11시 ~ 오후 5시

장소: 국민대학교

일정:

시간	본 행사	기타
오전 11:00	개회식	
11:30	전통혼례식	서울인형극회 인형극
12:30	점심	2회 공연 (각 40분)
오후 1:30	앉아서 하는 공동체놀이	아동 비디오상영
2:00	노래자랑대회	전시: 영유아보육법
2:40	지역가장행렬	개정 경과, 육아의
3:30	대동놀이	번천사, 아바일기
4:30	폐회식	이외에 아동실외프로
5:00		그램이 다수 있음

* 참가비: 가족당 3천원

■ 자료회원 신청 안내 ■

본 회는 매월 탁아활동과 관련된 각종 연구결과를
탁아소에서 꼭 알아야 할 소식을 모아
탁아활동의 길잡이 「함께 가는 길」을 발간하고 있습니다.
본 회는 「함께 가는 길」을 정기적으로 받아보실 자료회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1) 자료회원이 되시면

1. 소식지 「함께 가는 길」을 매월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2. 소식지외에 본 회에서 만드는 자료집에 대한 정보를
신속하게 받아보실 수 있으며 회원 가격으로 공급합니다.
3. 본 회에서 주최하는 여러 교육과 행사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2) 자료회원 신청은

1. 자료회원 신청을 사무국으로 합니다.
(주소, 연락처, 신청자 (어린이집) 이름, 우편번호)
2. 회비를 다음으로 송금해 주세요.
3. 송금 후에는 반드시 연락해 주세요.

다 음

* 송금지: 국민은행 068-21-0479-041 정희연
* 회비: 6개월 회비 만원, 1년 회비 2만원

장난하는 아이, 긴장한 교사

/ 장난감? 놀이감!

우리는 흔히 아이들이 놀이할 때 쓰는 기구를 '장난감'이라고 한다.

장난을 하는 '감'이라는 뜻인데 이 '장난'이란 말을 잘 생각해 보면 '꼭 필요하지 않지만 재미로 하는 소일거리'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별 생각없이 장난감이라는 말을 쓰고 있지만 여기에는 아동을 어떤 존재로 보느냐 하는 가치관이 담겨 있다. 이것은 아동을 연약하고, 어른이 무언가 가르쳐주어야 하는 존재, 넘치는 과잉에너지를 분출하기 위해 목적없이 움직이는 존재로 보는 시각이다.

그러나 아동기에 대한 연구가 활발한

근래에 와서는 아동을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라 능동적으로 주변세계를 탐색하고 환경과 상호작용하면서 스스로 발달해 가는 주체, 인격체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아동이 주체가 되어서 하는 모든 활동을 '놀이'라고 한다.

아동은 '놀이'를 통해 성장하고 발달해간다. 이러한 놀이의 적극적 기능을 인정할 때 우리는 '장난'을 놀이로, '장난감'을 '놀이감'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 처음 듣기에는 생소하지만 아동을 이해하고 존중한다는 긍지를 갖고 '놀이감'이란 말을 쓰자.

(판매가 단위는 원, 회원은 (내), 외부는 (외)로 표시함)

판 대	『우리아이들의육아현실 과 미래(한울)』, 3,500		『탁아교사를 위한 교육 활동자료집- 제 1부 아동교육, (지택연)』, 내5,000/외 6,000	
	『수.과학활동자료집, (지) 내 3,000/외3,500		『탁아자원활동이란』(지) 내,외 1,000	
	신간)『3-4세를 위한 교육활동자료집, (지) 내 4,000/외 5,000		『일하며 키우며- 일본 보육운동사』(백산) 내 4,000/ 외 5,000	
일 립	〈 물품대금 및 회비 납부 안내 〉 회원 탁아소에 알립니다. 본 회에서 발간, 배포한 자료 집 및 가져가신 물품의 대금을 꼭 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탁아소 회비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			지역대표께서는 여름 수련회 사진 확인하시 고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간사)
	〈 베이비 헌트 옷 가져가세요! 〉 바자회 용 물품으로 적당함. 품질 하자 없음. 영아~3,4세 용 옷. 옷 한개당 500원씩에 줄 수 있음. 연락은 부천 아이사랑어린이집으로 (032-682-6449)		〈 서울시 보육교사 실기보수교육 〉 ※ 일시: ①9/13~17 ②9/20~24 (월~금, 150명) ※ 장소: 중앙대학교 전산센터 1504강의실 ※교육기관: 중앙대학교 산업교육원 ※ 교육내용: 영유아보육에 관한 실기교육 ※ 수강료 무료, 9월2일까지 각 구청 가정 복지과에 신청하여 교육을 진행하고 있음	
	지난 7월 말부터 실시되었던 「전국 6대도시 보육시설 운영 실태조사」를 잘 끝 내게 되었습니다. 더운 날씨와 방학, 휴가 등 어려운 상황속에서도 열심히 조 사하신 지택연 가족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회장단, 사무국)			
일 립	노동자 신문창간 4주년맞이 〈 제4회 노동자가요제 〉 ※ 일시: 9월 26일(일) 오후2시 ※ 장소: 올림픽 역도경기장		〈 추석 연휴 사무실 휴무 안내〉 ※ 기간: 9월 28일(화) - 10월 3일(일) 위 기간동안 연합회 사무실은 휴무입니다. 각 지역에서 연락하실 일은 10월 4일(월)부터 해주세요.	

* 판매, 구합, 행사 등의 양식 일이 있으면 지택연 베품시장을 이용해 주십시오.

편집부에서

* 지난 7월호를 보고 말씀해 주신것
에 감사드립니다.

‘전환기 사회와 사회복지의 전망’은
현 사회복지 정책의 본질과 탁아주변 정
세를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으며

각 탁아소에서 실제적으로 써 본 방
학통신문의 사례 제시도 좋았다는 이야
기도 해주셨습니다.

편집부에 힘이 되었던 내, 외부의 격
려 전화에 특히 감사드립니다.

* 이번 호는 8,9월 합본호로 냅니다.
발간일자가 늦어져서 대단히 죄송합니
다. 소식지가 안 나온건지, 나왔는데 못
받아본 건지에 대해 문의전화를 많이 해
주셨습니다.

‘함께 가는 길’에 대한 말없는 지지
와 애독을 느꼈으며 더욱 알찬 소식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발간일자를 맞추지
못함을 다시 한번 사과드리며 양해해 주
시기 바랍니다.

* 10월호는 어머니 큰잔치를 끝낸 후
에 발간할 예정입니다.

* 자료회원 신청에 관하여
본 회의 월간 소식지인 ‘함께 가는
길’ 및 그외 탁아에 관련된 자료를 정기
적으로 받아보실 분들을 자료회원으로
모십니다.

각 지역위원회에서 만나고 있는 민간
탁아소들에게 소식지를 관해 주시기 부
탁드리며 신청은 사무국으로 연결해 주
시기 바랍니다.

* ‘함께 가는 길’ 후원에 감사드립니다.
다. (국민은행, 068-21-0479-041,
정희연)

최홍국 10,000원
권혜진 20,000원

* 두달의 여유가 있다고 해도 언제나
그렇듯이 소식지를 내는 것이 뻔뻔한 건
왜일까? 특히 이번에는 토론회까지 걸려
있어서 더욱..

하반기를 여는 첫 소식지이니만큼 많
은 관심 갖고 읽어주길 바란다.

* 탁아소에서 일하면서 편집부일을
같이 하는건 정말 어렵다. 이제는 이사
가서 거리도 멀고.. 정은이가 고생바가
지다. (애용)

* 마지막 밤 작업을 하는 날. 어머니
큰잔치 준비모임을 끝낸 후 남은 선경이
‘정은아, 나 오늘 돈 있을 때 족발 먹으
러 가자..’

또 새끼를 하나 낳은 기분 같다. 기분
좋은 피곤함으로 인체소로 갈 때의 그
기분은 아마 책을 내보지 않은 이들은
모를걸? (정은)

함께 가는 길
8,9월 합본호 <14호>

※ 지키티언 가족이 함께 만든 이 책을 어린이들을
아끼고 사랑하는 모든 분들께 드립니다.

펴낸곳: 지역사회키티언소연합회
중구 장충동 1가 38번지 84호
여성평화의 집 3층
02)275-8505~6

펴낸이: 최현숙
몸은이: 정희연, 이애용, 서정은
펴낸날: 1993년 9월 17일
